



時計塔

SIGETOP



2015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2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발행인: 徐 倫 錫
편집인: 李 元 澤

편집위원: 金 明 源 徐 亮
羅 斗 燮 徐 仁 錫 李 善 姬

자문위원: 盧 鎔 冕 金 炳 哲
李 熙 景 許 善 行

33rd Annual Medical Convention

June 1(Wed) - 5(Sun), 2016

세계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제 33차 학술대회와 동창회가 2016년 6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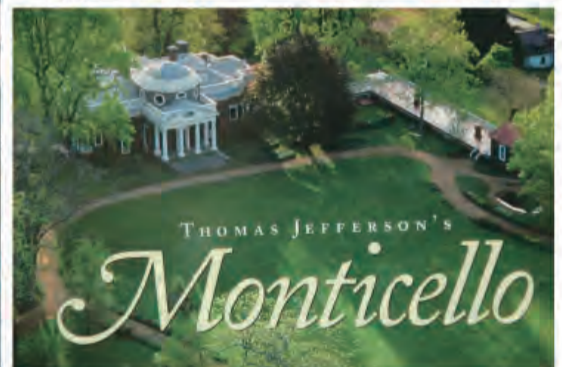
쇼핑의 중심지인 the Westin Tysons Corner 호텔이 \$109/night이며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동문들께서 많이들 참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Pre Convention Golf at Lansdowne Resort

Greg Norman Course, Trent Jones course
June 1(Wed) - 2(Thu), Two rounds of Golf and one night stay
877 509 8400 for SNUCMAA
44050 Woodridge Parkway Leesburg, VA 20176, USA

Scientific Convention at the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 Tel: 703 893 1340
June 2(Thu) - 5(Sun)
Grand Dinner June 3rd 7 pm 2016
Grand Banquet June 4th 7 pm 2016



Washington area Tour: half day pm Saturday June 4th 2016 **one day** Sunday June 5th 2016

Capital City Washington, Smithsonian Art Museums, Luray Caverns, 아메리카에 민주주의를 심은 Thomas Jefferson의 Monticello, Plantation and Skyline of Shenandoah National Park 등등

준비위원회: 이재승(61), 신백효(65), 김진수(66), 김철(68), 신용계(68), 주광국(68), 신규호(68), 서윤석(68), 김병오(69), 조병선(71), 조세진(71), 신원석(88) 그리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서울의대 동창회원 일동 드림

SNUCMAA of NA 2015 ANNUAL BALL

December 6th (Sunday), 2015 5pm to 10 pm

Delegate Meeting: 3pm - 5pm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 703 893 1340 or 866 627 8970

참가비: \$100/1인, \$180/부부

Hotel reservation: SNUCMAA group, Code SL03AA, \$89/night, Phone (866) 627-8970



2015년 회장단 보고

회장 서윤석 (68)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일어났던 동창회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드린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광수(41년 졸업) 선배님이 초대 회장단을 구성하여 1972년 시작 되었던 우리 동창회가 이제 44대에 이르렀습니다. 임원진들의 나이도 당시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따라 50대 후반으로 또 지난 10년간은 60대 후반으로 늘어났다가 이번 회장단에는 70대 초반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고령의 임원들입니다. 현재 미주 서울의대동문들의 평균 나이가 74세로서 두 숫자가 평행되는 현상입니다.

회원들의 거주지도 Mid West나 북쪽에서 출고 해마다 서부(California)나 비교적 남쪽인 버지니아 즉, 수도 워싱턴 근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창회 사무실이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 부근에는 많은 회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00명의 회원의 70퍼센트 정도가 일선에서 불어나셨고 1980년 후에 졸업하신 동문들의 수가 105명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운영도 이런 변화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동창회의 운영상 비교적 젊은 분들을 두 그룹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졸업한지 20년 이내의 회원님들은 GP(Green Project)이라고 부르고 그 전에 졸업하신 GP를 이끌어 가시는 그룹을 Honorary GP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의 운영은 고령화된 대다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엔 변함이 없으나 앞으로를 위하여 GP-Group의 활성화도 절대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 6월 초 Convention에서 senior 회원들에게도 유익하고 필요한 강의 topic 과 강사가 CME와 non-CME program에 채택됩니다. 아울러 GP group도 많은 Scientific Speaker로, 또 Poster Presentation으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께 흥미롭고 가치 있는 Convention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로 13명의 장학금이 선택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기증해주신 여러 동문님들께는 물론 김태웅 장학금을 보내신 분께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의 지난 8년 이상 우리 동창회의 Website 운영을 위하여 시간과 많은 경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신 김성수 동문께도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행사에 늘 참여하시고 대외적으로 미주재단을 운영하신 이만택 동문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 같은 여러 동문들과 물질 양면으로 우리 동창회의 기둥이 되어주신 지난 40여년간의 여러 전임 회기의 임원 여러분들과 많은 동문들, '시계탑' 신문의 발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68년 동기들과 버지니아 지부, 메릴랜드 지부의 여러 동문으로 구성된 이번 회기의 임원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열정으로 운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정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창들이 궁금해 하시던 일도 같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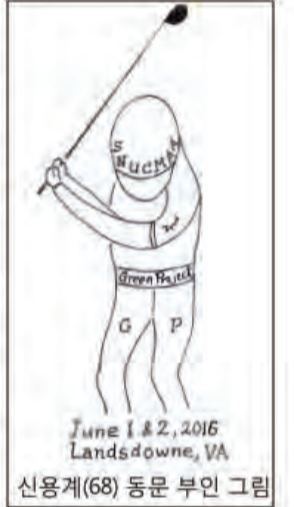
지면을 통하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령화 되는 우리 동창회에 활력을 주기위하여 회비를 내실 때 GP Fund에도 donation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GP들 중에는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창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옛날 일을 도리켜 본다면 이런 젊은 동문들을 눈여겨 찾아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멘토어(mentor)가 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동창회의 임원으로서 해야되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김동훈 남가주지부 회장님과 한민우 뉴욕지부 회장님께서 기꺼이 GP Fund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9월 말에 마감인 합춘의학상은 신청서는 동창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위가 있고 영예로운 상이 되어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와 의료 업적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신 분만 미주총동창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직접 apply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로서는 작년까지는 추천서를 Research Committee를 통과한 한 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중임을 맡아온 조세진 chair에 의하면 China Medical Board의 도움으로 미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 상이 김상인 회장님 임기에 서울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주동문들에게 배당되던 한 명의 쿼터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국내 동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미주 동문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주관하는 합춘 공로상이 생겼습니다. 만일 이 상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미주동창을 위하여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 추천되실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 때까지 재무사항으로는 전임회장단의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여 다음 기회에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창회의 물레바퀴는 쉬지 말고 회전해야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신입회장단의 예산은 짜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동창회의 운영상 사무실경비, 시계탑의 발행 등을 위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회비가 꼭 다 들어와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회비의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미 Donation을 주신 여러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계탑에 성함이 게재되며 연말에 개개인의 보고서를 드립니다.

끝으로 각 chapter 마다 송년회를 하시겠지만 이미 지난 시계탑에 홍보가 된 것과 같이 12월 6일(일요일) 저녁 5시에 2015년도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공식 송년회(2015년 Annual Ball)가 버지니아의 Westin Tysons Corner 호텔에서 열립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의 동문들은 물론이고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지역의 동문들도 가능하면 California, Mid-West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도 같이 진행됩니다. 또 그날 오후 3시부터 제 일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대의원회(Delegate, 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입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하루를 맞이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2015-16 제1차 이사회 초록



일 시: 2015년 9월 12(토) 오후 4시
장 소: 우래옥, 타이슨스 코너, 버지니아

참석자:
김진수(66) 김 철(68) 서윤석(68) 신용계(68) 주광국(68) 김병오(69) 조병선(71) 조세진(71) 서인석(73) 이선희(81) 남명호(81) 한창규(81) 신원석(88) 오무연(89) 박종철(99) 장세권(01) 송경민(09) 김근화(12)

Proxy:
노용면(55) 이만택(58) 채규철(59) 이희경(61) 송영두(62) 정정수(62) 김태웅(63) 김택수(63) 한기현(63) 이흥빈(63) 한기현(63) 권정덕(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신규호(68) 김홍서(69) 이성준(70) 강창홍(71) 김일영(71) 김성환(71) 오용호(72) 전경배(75) 한민우(75) 한승신(76) 김동훈(77) 백승원(79) 최광휘(79) 심인보(83) 조형기(92)

1. 성원 점검후 오후 4시 서윤석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작고하신 동문들께 조의와 묵념이 있었음: 김익창(56)동문, 이유찬(64)동문, 성악가 백운선(이정환 58)동문 부인)
2. 지난 이사회의 초록에 대하여 수정없이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3. 참석한 동문들의 소개에 이어 임원변동으로 새로 선출된 동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한승신(76), 신규호(68): Scientific committee Co-chair.
주광국(68): Treasurer, 신용계(68): Assistant Treasurer.
이선희(81): Scholarship Committee Assistant Chair.
4. 재무보고 (주광국 68): 2015년 7월 1일 이후의 회계보고와 예산보고를 하였음. 질의와 답변 후 제청을 거쳐 승인됨. 2014-2015 재무보고는 오는 12월 6일 대의원회에서 하기로 하였음.

Committee 보고:

- Scholarship Committee (오무연 89 위원장):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음. 2015 Spring 김태웅 장학금에 유다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에는 김지훈, 김현수, 연희라, 우경아, 이재현을 선정, 6월 27일 Executive meeting에서 승인되었음을 보고함. 9월 9일 Scholarship Committee meeting을 열어 2015 Fall 김태웅 장학금에 최지영(CA)과 최평은(MD),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에는 심성열(OH), 박보민(MD), 박성우(MD), 송지민(NY), 한본양(HI/NJ)을 선정했음. 간단한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
 - Finance Committee (최순채 66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Scientific Committee (한승신 76, 신규호 68 공동위원장): 한창규(81) 동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함.
 - Green project Committee (남명호 81 위원장): GP report가 있었음. 서윤석(68)회장의 GP fund raising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 63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71 위원장): 합춘학술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66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By Law Committee (노용면 55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Office Management Committee (강창홍 71 위원장): 서면보고, Website 설치와 동창회 사무장의 근무시간고려, 과로로 인한 업무지장에 대한 보고가 있을 보고함.
 - Silver Committee (김철 68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58 위원장): 서울의대도서관 건립 기금 모금에 대한 논의와 미주재단을 통한 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Publication Committee (이원택 71 위원장): 특별 보고사항 없음
 - Convention Committee (김진수 66, 조병선 71 공동위원장): 33회 Annual Medical Convention은 Washington DC Area에서 2016년 6월 1일(수)부터 6월 5일(일)까지 열릴 예정임. Pre convention Golf는 Lansdowne Resort에서 6월1일 2일, Scientific session은 Westin Tyson's corner Hotel에서 6월 3일과 4일, Washington DC area tour는 6월 4일에 half day와 6월 5일에 full day tour가 예정되어 있음.
- New Business:**
1. 동창회 지부의 Revenue sharing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차후에 논의를 더 하기로 함.
 2. Green Project Member에 대한 정의는 50세 이하로 졸업 후 20년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Honorary GP에 포함되는 것은 희망자에 한하기로 하였으며 동의 를 거쳐 제청, 승인되었음.
 - 2015년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Annual Ball은 지역서울대동창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일) 오후 5시- 10시에 Westin Tyson's Corner Hotel에서 열릴 예정임을 공고함.
- 서윤석(68)회장께서 참석한 모든 이사 및 동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후 6시 폐회선언을 끝으로 제1차 이사회를 마칩. -Prepared by 총무 신원석(88)

동문동정 및 시부소식

임종식(57) 동문: 상금 반려

메릴랜드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Cancer research를 하면서 '사진학'에도 정진하여 지난 사진공모전 기념사진 부문에서 2등 입상을 한 임종식(57)동문은 상금 100달러를 다음 Photo Contest의 경비로 써 달라고 되돌려 보냈다. 아무쪼록 임동문의 뜻대로 우리 사진전이 영계백세, 일취월장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허경옥(62)동문 부군 별세

오랫동안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시고 서울의대 남가주 동창회장도 역임하신 허(김)경옥 동문의 부군 허환 남께서 지난 9월 19일 남가주의 LaPalma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평소 허환 님은 의대 동창회에 반드시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시는 의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석(68)동문: 시집 발간

현재 북미주동창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서윤석(68)동문이 시집 '민들레 꽃 피는 우리집'을 발간했다. 2010년 3월 '시문학' 신인우수작품상으로 등단하고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이기도 한 서 동문은 2011년에 시집 '고마운 마리아'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원택(71)동문: 문학평론 등단

본보 편집장 이원택(71)동문이 한국 종합문예지 <미래시화> 금년도 가을호에 '번역의 당위성'이란 평론으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평론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이 동문은 이미 수필과 시에서 등단된 바 있으며 현재 <한미 번역문학가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조형기(92)동문 후로리다로 이주

마취과 통증전문의로 남가주 동창회의 만년 총무를 맡았던 조형기 동문이 금년 10월 올랜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로리다 동창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북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 보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2015년도 해외의학연구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0월 7일 모교 교육관에서 있었다. 서울의대 학생으로는 김태웅장학금에 유다애, 서울의대동창회장학금에는 김지훈, 김현수, 연희라, 우경아, 이재현이 선정되었다. 또 미국동포장학생에는 김태웅장학금의 최지영(OH), 최평운(MD) 서울의대 동창회장학금에는 심성열(OH), 박보민(MD), 박성우(MD), 송지민(NY), 한분양(HI/NJ) 등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동부는 12월 6일 Annual Ball, 서부는 2016년 1월 23일 남가주 지부 신년모임에서 있을 예정이다.



남가주 지부 선후배의 밤 성황리에 마쳐

지난 8월 23일, 남가주 동창회 선후배의 밤 행사를 조경구(78) 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Old Ranch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동문과 동문부인 총 90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후배의 밤 행사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은 14번째가 되는데 주로 8월에 행사를 가지며, 올해에도 타주에서 남가주로 이주하신 동문 2분과 처음 나오신 동문 2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후배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위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문과 사모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문들과 동문부인들의 단체사진) - 김동훈 남가주 회장 기부금 현황 (2015년 3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영철(49) 100 권영조(63) 2,000 김태웅(63) 1,000 조한원(63) 200 조동준(64) 100 최창식(67) 100 육태식(67) 100 김홍서(69) 500 김동훈(77) 1,000 차민영(82) 1,000 백지혜(88) 300



64년 졸업 동부지역 동기 모임

동부 뉴욕지구 64년 동기들은 자주 만남으로써 우정을 유지하고 소외됨으로부터 벗어나자고 순서를 짜서 2-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지난번 모임에는 쌀쌀해지기전에 철따라 남쪽으로 보금자리를 바꾸는 친구들이 뉴욕지구를 떠나기전에 만나자고 해서 9월말에 NJ 동방그릴 식당에서 모두 부인과 합쳐 23명이 모여 점심과 환담을 나누었다.

서부 LA지역에서도 그 지역 동문들은 2개월 정도에 한번씩 만난다고 하는데 지난 9월에는 이흥표 동문회에서 모두 모였다고 한다. 지난 몇년 동안 기후좋은 곳 또는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장거리 완전 이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PA의 양운택 동문 OH의 송원길 동문 II의 오수환 동문 NJ의 조성준 동문이 CA LA 지역으로, WA State의 이재영 동문이 NJ로 자리를 옮겼다.

금년들어 MI의 김원영 동문과 NJ의 이유찬 동문이 지병으로 타계하여 가슴이 아팠고 한동안 울적하였다.

지난해 졸업 50주년기념으로 한국에서 한국과 미주동창들이 모여 큰잔치를 벌였는데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55주년 되기에 중간모임을 원하는 의견이 많아 내년 여름에 다같이 함께하는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Florida에 휴가간 친구들이 여러명이 있어서 그곳에 사는 친구들과 작은 동창회를 갖게 되었다는 예가 있어서 금년 겨울에는 후로리다에 이왕이면 같은 기간에 놀러가서(1월 말) 그곳의 친구들과 합류하여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것도 계획중이다. - 권정덕

68년 졸업 동기 가을 골프모임

68년 동기 골프 모임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Virginia의 Stone Wall Country Club에서 시작됐다. 한 해도 빠짐없이 30년간 계속되는 3박 4일간의 연례 행사인데 그동안 수고하던 이규달, 또 작년까지 담당하던 서진석 후임으로 금년부터는 신용계 신임회장이 주관했다.

이번 모임에는 멀리 인천에서 국내 최신 최고의 200병상 시설인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을 설립하여 초대원장으로 8년간 봉사하다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윤명, 그리고 멀리 타주에서 온 신규호, 박정식, 안세현 동문들과 이곳의 김철, 김진홍, 김영덕, 김주평, 서진석, 신용계, 주광국, 정재성, 서윤석 등의 부부가 참가하여 금년에도 그동안 밀린 우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내년 이곳에서 열리는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를 위하여 더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의외로 단련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들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수상자에게는 쌀 한가마니를 탄 안세현 부부와 김진홍 부인이었다. 사진은 그 수상자들과 참가한 분들이다. 우승 트로피는 김주평 동문이 마련했다.

그동안 버지니아의 동기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골프를 치며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 글 서윤석 /신용계



대뉴욕지부 송년의 밤

2015 대뉴욕지부 Annual Ball(송년의 밤)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Date: November 6th(Friday), 2015

6:30 - 7:45 P.M. Cocktail reception

8:00-11:00 P.M. Dinner & Entertainment (양세일 악단)

Place: Hilton Pearl River

500 Veterans Memorial Drive, Pearl River, NY 10965
(845) 735-9000

\$120(single), \$200(couple)

Check payable to: SNUCMAA GNY
Address send to : SNUCMAA GNY
22 Maple St. Englewood Cliffs, NJ 07632

참가여부 연락처: 한민우(75)

email: minwoohan51@gmail.com,
cell phone (201) 957-9064
Jamie Kim: snucaa@yahoo.com

Dresscode:BlackTi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뉴욕지부 회장 한민우

한인사회의 큰 별 김익창(56)동문 별세



Luke and Grace Kim Endowed Professor in Cultural Psychiatry

한인 정신과 의사들의 대부 역할을 하며 의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커뮤니티 봉사에도 앞장서 온 김익창 박사(영어명 루크)가 지난 7월 12일 85세 일기로 별세했다. 고 김 박사는 1977년, 한인 최초로 미정신과학회에서 수여하는 아시아계 의사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또 1973년 한인 이철수씨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자 구명운동에 나서 17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 이씨의 석방에 기여했으며 한미연합회에 창립

이사로 참여하는 등 많은 성취와 업적을 남겼다. 1930년 신의주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중 한국전쟁이 터지자 해군의무하사관으로 자원입대, 의무장교로 복무했다. 그는 흥남철수 작전 당시 통역관으로도 활약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1960년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리조나,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다가 새크라멘토와 데이비스 지역에서 38년간 정신과 의사, UC 데이비스 임상교수로 재직후 2006년 오렌지카운티의 실비치 레저빌드로 이사했다. 김 동문은 당시 겪은 전쟁의 참상을 한인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킨슨 병과 싸우면서 2011년 저서 '사선을 넘어서'를 출간했고 이듬해엔 영문 전역판인 '비욘드 더 배틀라인(Beyond the Battle Line)'을 펴냈다. 고인은 1971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아태상

담소(APCC)를 통해 많은 한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06년 UC 데이비스에서 은퇴한 고인은 현재 생존하시는 부인 Grace와 온 가족이 동의하여 남은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하여 거처를 작은 곳으로 옮기면서 25만 달러를 후진양성을 위해 대학 측에 기부했다. UC 데이비스는 2009년 김 박사 부부에게 이름을 따 '루크 앤드 그레이스 김 석좌교수' 직을 신설, 김 박사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방정부 교통부 부차관보로 재직중인 고인의 장남 David Kim이 동창회에 보내온 감사의 편지와 함께 미망인께서 영결식 후에도 북미주동창회 장학기금으로 500달러를 보내오셨음을 시계탑을 통하여 여러분들에 알려드립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그레이스 김여사, 두 아들과 며느리, 4명의 손주가 있다. 아울러 고인을 기리는 여러 동문들을 위하여 다음 Information을 게재한다. 이 세상에서 남기신 고인의 훌륭한 업적을 찬양하며 선배님의 명복을 빌면서, - YS Seo

UC Regents for the Luke and Grace Kim Endowed Professorship in Cultural Psychiatry.
Mail to University California Davis Health Systems
Health Sciences Development
4900 Broadway, Suite 1150, Sacramento CA 95820

Dr. Seo - Thank you for your letter as well as contribution to the Luke and Grace Kim Endowed Professorship in Cultural Psychiatry. The Kim family greatly appreciates your words of comfort as well as generous contribution from you and your fellow members of SNUCMAA. As you requested, I placed your envelope in the mail and it should arrive in Sacramento over the next few days. Please convey our heartfelt appreciation to everyone in SNUCMAA. Thank you again. - David S. Kim

이유찬(64) 동문을 추모하며

이유찬 동문과 나는 참 오랜 세월 가깝게 살게 된 인연으로 얽혀져 있다. 같은 중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3년을 마친 다음, 같은해 1967년에 도미 하였는데, 인턴쉽은 다른 도시에서 마쳤지만,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는다고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병원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때 간호사인 Mrs. Rhee가 브롱스-레바논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나의 아내 닥터 홍이 그 병원에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우리는 브롱스의 바로 이웃 아파트에서 미국의 초년 생활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그 후 닥터 이유찬은 Long Island에서 소아과 개업을 하였고, 나는 Pathology Attending으로 Metropolitan Hospital에 남게 되어 계속 뉴욕시 근교 생활을 같이 하였다.

그동안 레지던트 트레이닝, 아기들의 출산 양육, 새 직업에의 적응, 그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때를 같이 웃고 울고 지냈다. 아기들의 돌잔치, 크리스마스, 연말 때의 만남, 뉴욕 근교의 Mohansic Park에서 피크닉도 여러 번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생생한 기억은 어느 해 롱아일랜드 몬타에서 Deep sea fishing trip을 하였던 때 이다. 그 때는 바다낚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여러 급우들이 같이 갔었는데, 배는 망망대해에 닿을 내렸는데 마침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배가 이리 철렁 저리 철렁하여 많은 가족들, 어느 집은 온가족이 뱃멀미로 지쳐 누워 있었다. 특히 심한 sea sickness로 고생하던 Dr. Rhee가 캡틴에게 bribing이라도 해서 빨리 육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나에게 간청하였던 그 때가 고생스러워서 그랬는지 잊혀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커집에 따라 종교 교육도 시키고 우리는 그 집 아이들의 god parent까지 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 살아온 많은 추억 가운데 여기서는 닥터 리의 고유한 몇 가지 high point를 얘기하고 싶다.

첫째, 닥터 이유찬은 외모와 옷차림이 유난히 남다른 단정한 친구였다. 특히 의과대학 시절에 포마드를 많이 바르고 빗질한 그의 머리에서는 파리도 낙상한다는 평이 있었다. 그의 딸 Jennifer도 자기 아버지는 아침에 머리 손질하는 데 20분 정도는 소비하곤 했다고 말하니 그의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랬는지 나이 75세에 한번도 염색하지 않은 그의 머리칼에는 흰머리털이 하나도 섞여있지 않고 숯도 좋은 것을 이번 에 발견하고 놀래면서 그것이 비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닥터 이유찬은 Mountain high 4 ocean deep pride를 가진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골프를 아주 좋아했고 슛 게임을 아주 잘했다. 그런데 어느 때 롱아일랜드에서 친구들과 골프 게임을 하였는데 Dr. 조성준, 오이석(법대)군이 한 팀이었고, 닥터 이유찬, 닥터 이진웅이 한 팀이었다. 보통상식으로는 닥터 이유찬 팀이 handicap point를 몇 개 받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닥터 이유찬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장 7번의 matching에서 7번의 저격을 사야 했다는 일화가 그의 일면을 보여준다.

셋째, 닥터 이유찬은 책임감과 성실함에 빈틈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 였다. 그가 롱아일랜드에서 개업하면서 환자들에게 얼마나 꼼꼼하고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는지를 닥터 이유찬의 은퇴 파티에서 보게 되었다. 환자였던 아이들이 만 들어준 여러 앨범과 글모음, 카드 등에서 자기들의 Pediatrician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애정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부럽게 생각하였다.

넷째, 닥터 이유찬은 노래를 잘 불렀다. 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던 그의 18번 '댄서의 순정'은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하다. 그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남자춤에 안겨 춤추는 댄서에게 어떤 연민의 느낌을 가지고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닥터 이유찬의 딸에게서 들었는데 닥터 이유찬이 의대에 다닐 때 서울의대 간호과 학생이었던 Miss 장화자(현재 Mrs. Rhee)에게 마음을 뺏겨 그의 attention을 받고 주사 한 대라도 맞아 보려고 일부러 아픈 척 하였다는 진짜 로맨스의 일화들이 있다.

다섯째, 닥터 이유찬은 very smart guy로 알려져 있는데 경기고등학교때와 의과대학시절에 top 10%의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스마트했던 것은 그 미스 잠을 부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철저한 완벽성으로 그리 쉽지 않은 그를 감싸며 보조할 수 있는 cushion 같은 역할을 한 Mrs. Rhee를 일찍이 알아 본 것이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계속 진행하였던 골골 많은 그의 질병의 증세를 오랫동안 같이 감수하며 마지막 단계때 놀라며 가슴조리는 여러 곤경을 겪으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그이 마지막 청을 들어 주느라고 임종 얼마전의 10여 일간을 집에서 간호하였던 용기있는 여인임을 알아 본 것 이다.

마지막 병상에서 고통 당하던 닥터 이유찬의 모습은 보기에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고통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그의 마지막 단계가 더 길지 않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Dr. Rhee, you studied hard, worked hard, raised 3 brilliant kids and had a good wife. "You had a blessed life."Despite of your sharp personality traits, you were a good and trustworthy friend and we will miss you for a long time. You used to dislike saying "good bye" to any one. So, we all say to you, "See you again.... in another world." 급우, 권정덕(64)

Eulogy for Youchan Rhee, MD

Good evening, For those who do not know me, my name is John Choi,(최준희) in Korean, and I am one of Youchan's best friends.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I stand in front of you today to celebrate the life of my friend. Youchan's life was taken away from us too soon and it is hard to understand why tragic things like this happened to such good people. However, this is question without an answer, and we should not dwell on the loss of our friend, husband and father.

Today let us celebrate his life and remember all of the remarkable things Youchan accomplished and how wonderful his life was.

Youchan was born in Seoul, Korea in doctors' family,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ing typical medical practitioner. So obviously, he was destined to become a doctor. He went to Kyunggi High School that is known to be one of most prestigious high school in South Korea. After graduated from the high schools, he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1958, through fiercely competitive entrance examination. This is the year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in the premedical course. We became since very close friend and confidant each other and continued a good relationship until now for 58 years. During medical school days, Youchan always maintained high standing in grades as honor student.

As soon as he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with an MD degree, he commissioned in Republic of Korea Navy as medical officer and completed 3 years' military obligation.

In 1967, then he came to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Internship in Pittsburgh, Pennsylvania, followed by Pediatric specialty training with special interest in Endocrinology, in New York City. Without wasting time, Youchan went to Private practice in Pediatrics in Long Island and continued for 35 years until retired in 2006.

Youchan, I remember, was a wonderful, dedicated pediatrician and most children-loving, caring, and compassionate doctor throughout years. Since I met him in 1958, we have been paired and bonded together whatever we were doing, particularly, studying for school examinations during 4 years medical school. Youchan is the type of person that hates to be a loser. He was the best Japanese chess player in our class of medical school. Also he is one of many friends who started golfing very early years, late 1970's and then became a good golfer. He used to teach me how to play golf and other things about golf in general. He really loved the game of golf. I have my favorite memory about him in relation to golf. Many years back, one evening our classmate reunion dinner meeting was held. I noticed Youchan carried a big box 12x8 inch in size. I asked him what it was. I was shocked with his answer. He said, he could play golf anytime, anywhere as long as he carries that monstrous box. That box was turned out to be "primitive form of Cellular phone", not cell phone now. That tells how much he loved the game of golf.

Let me tell you about Youchan's family. He married to a young lady, Whaja, wonderful, very caring, 10/10/1966. Of course, I was at the wedding. He has beautiful 3 children, 2 sons and 1 daughter. The oldest son is ENT specialist with special interest in plastic surgery. The younger son is a lawyer, the only daughter is a financier. All in all, he has had very enviable wonderful family. My wife and I met through Youchan and his wife. They were best man and bridemaid respectfully at our wedding in 1969.

When I had any pediatric problems with my children Youchan was consulted and he was incredibly responsible, intelligent and caring.

I respected him more than words can say. It is incredibly sad that Youchan's life ended this soon and I can not put into words how much I will miss him. Youchan was a positive man and would not want us to be sad today. If he were here, he would tell us to cheer up, smile and remember all of the great memories we all shared. Even though Youchan may be gone his memory will live on in all of us forever.

Youchan, I appreciate your friendship and will never forget you.

<편집자 주> 지난 7월 24일 작고하신 이유찬(64) 동문은 독실한 천주성도로서 바둑의 고단 이셨으면 약 일년간 시계탑 편집위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조사는 동기 최준희 동문이 장례식에서 읽었던 영문 그대로 게재하게 되었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紙上法醫

누가 그의 아버지를

노용면(55, 대뉴욕)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50세 초반의 중국계 사업가인 왕충견씨는 그곳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 그는 뇌조직 빈혈로 경한 마비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와는 얼마전에 헤어졌다.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아 주는 여인을 집에 오게 했고 밤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씨가 아버지를 돌보는 여인을 데리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을 했으며, 그 후 모텔에 까지 갔다. 왕씨가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급히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노인이 밤 늦게야 의식을 찾았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기쁜 표정을 보였다. 그런 후 왕씨는 자기 잘못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으로 크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일을 끝마치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가 몹시 반가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그 노인

이 아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감정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왕씨는 곧 자기가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아버지에게 먹였다, 아버지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가 기침을 하면 밥알이 튀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것을 본 간호사들이 왕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음식물을 아버지 입에 넣었다. 이러한 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국 병원이 환자의 식도에다 튜브를 넣어야 했다. 입원한 지 약 2주일 후 노인은 사망하였다.

왕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내게 전화로 연락을 해 왔는데, 그 노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도와 달라고 했다. 내가 비행장에 도착하니 왕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에 가서 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꼭 사인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했다.

내가 그 병원에 가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X선 소견을 보니 그가 입원했을 때는 왼쪽 폐의 하엽에 아주 경한 염증소견이 있었는데, 사망 직전에는 양쪽 폐의 상엽에 심한 염증소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뇌

CT scan은 이전에 있던 경한 병조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심장혈관계통에도 별 병변이 없었다.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에도 내가 참여했다. 그의 사인이 폐렴임을 확인했다. 내가 왕씨에게 그의 아버지가 걸린 심한 폐렴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 생겼으니 그것이 병원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풀이 했다.

몇 주일 후에 왕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왔는데, 자기가 그 병원을 걸어 소송을 한다고 했다. 내가 병원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병원이 자기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내가 시신의 폐조직을 담은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보고 싶으니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그에게 일렀다.

병리 슬라이드들은 참으로 엄청난 정보를 보여 주었다. 흡입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이물들을 둘러싼 육아조직 반응(granulomata)이 가득했는데, 이들 이물 속에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뚜렷히 보였다. 내가 왕씨와 그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 케이스는 끝나야 했다.

참고 문헌: 지제근, 송계용, 노용면: 병리학 원색 도보, 고려의학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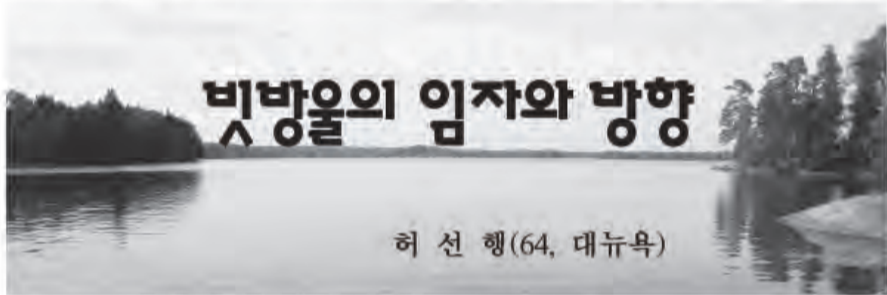
Shopping 가는 아내에게

신영철(59, 메릴랜드)

여보 shopping 가거든 필요한것은 돈 애끼지 말고 다사 돈 두었다 뭘해

그러나 사고싶은것이 있거든 한 번만 더 참여봐

그리고 혹시 시간 파는데가 있거든 거기 있는 것 다사 돈이 모자라면 전화해 내가 집문서 가지고 달려갈게



빗방울의 입자와 방향

허선행(64, 대뉴욕)



요즈음 뉴저지 뉴욕 시 지역에 가뭄이 와서 저수지에는 물 재고량이 30%도 안 남았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열심히 잔디에 물을 주어도 노래만 지는 금잔디(?), 빗물처럼 좋은 spinkler system이 있겠는가!!!

캘리포니아 주에선 가뭄이 너무 심해왔고 그 가뭄이 오래되어서 식수를 트럭으로 배달한다나...

거기다가 요즘 한국 뉴스 매일 안보면 하루 일과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 몇 가지 뉴스중에서 늘 안타까운 것은 매일 크고 작은 화재와 문명인답지 않게 저지르는 교통사고인데 여기다가 가뭄과 홍수까지 추가되고 있다고.

하물며 미국같이 땅 덩어리가 큰 나라에선 수시로 홍수, 가뭄, 태풍, 회오리 바람 등의 자연의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뭄의 피해가 너무 큰 미국의 몇 개 주에선 농사는 집어치우고 목장의 가축까지 굶어 죽게되니 아예 도살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니 내가 사는 이곳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껏 흥청망청 물을 쓰다 보니까 사실 그 낭비 버릇이 쉽게 고쳐질까 의아해 보면서 지구상에 있는 물을 따져 본다면, 사실 지구는 그 2/3이상이 물로 덮혀있는데 97.5% 정도가 바닷물(짙물)이고 그 나머지 2.5%가 민물인데 빙산, 지하수를 비롯해서 강물, 호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빗물이 우리가 사용하고 의존하는 물의 원천이라고 하겠다. 대기에는 전체 빗물의 0.04%가 있는데 바로 이 빗물이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옥토가 되고 개울 폭포, 호수가 있게되고 인류 문명의 터전이 되어온 강물이 흐르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다. 불행하게도 하늘과 땅과의 물리적 현상(산의 높이와 계곡, 자전, 공전, 지구상의 위치 등에 따른 Jet Stream 등 때문에 비의 세례를 못 받아 사막으로만 남아있는 땅도 어지간히 많다고 본다.

지구 표면의 71%는 바다로 덮혀있고 29%가 육지라고 알려져 있는데(강물의 표면도 포함되어?) 이 육지의 33%가 사막이라고... Google에서 찾은 이 수치가 맞을 것으로 생각하며 늘 무식해 온 나 자신을 한탄해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전체 빗물의 0.04%가 우리에게 삶을 주는 빗물의 전신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느 때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옥토와 사막이 일차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홍수나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오는 물의 피해는 그 은혜의 한 작은 과정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최근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두 번이나 받던중 또한 신문에서도 같은 경고가 나오면서 콜로라도 주에서는 자기 지붕위에 떨어진 빗물도 받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지붕, 내 땅에 떨어진 빗방울도 내 것이 아니고 그대로 흘러 흘러 냇물이 되고 호수나 강으로 흘러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의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간 이런 비슷한 법을 정해온 주들이 계속 옥토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물 사용의 제한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자연의 현상은 현재 과학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빗방울의 방향을 조절 할 수 없다면 강물, 호수물, 심지어는 바닷물이라도 이용해서 가뭄의 피해를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사막을 옥토로 만들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신간 소개

이한수의 sci fi, DREAM WAFER

최근(2015년 7월 말)에 출판된 이한수 동문(61)의 Scientific fiction, Dream Wafer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개업의로 대학 연구교수에 필적하는 탐구와 예리한 분석력을 구사하며 환자 치유에 몰두하던 그는 필경 글을 쓰기위해 한 발 일찍 은퇴했던 것 같습니다.

Genome, neurotransmitters, cyber, laser, dronette, Optical wall 같은 첨단, 가상 분야를 위시하여 천문, 르네상스, 고대 신화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소상히 섭렵 하면서도 저자의 알찬 vocabulary와 유연한 문체는 시계탑 독자를 위해 저자가 쓴 책 내용 요약과 책 전면사진을 올립니다. - 이희경(61)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 오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기에, 학문적으로 용인된 꿈에 대한 사실들을 여러 모로 일반 대중에게 설명해 보고자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Dream Wafer는 책의 주인공 Dr. Jupitren이 고안한 미래적, 상상적 발명품입니다. 개개인이 computer questionnaire에 답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꿈을 주문하면, 그 사람의 genome과 뇌신경 화학물질들을 바탕으로 그가 원하는 Dream Wafer 즉, dream program skin patch를 만듭니다. 그 skin patch를 관자놀이(temple)에 붙이고 자면, 주문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과 불안, 수면장애, 조울증, PTSD 등의 불안 상태를 임상적으로 호전시키는 가상적 치료방법입니다.

이야기는 Dr. Jupitren이 그의 환자와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의해주는 대목에서, 또 꿈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과의 문답 등에서, 꿈에 대한 과학적, 심리학적, 또는 정신과학적 기존 사실과 정보를 설명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러는 한편, Dream Wafer program을 도입하려는 악역들과 Dr. Jupitren과의 공방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그로인해 생기는 탐정 이야기와 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romance 등이, 꿈에 대한 설명과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악역 중의 한사람은 Dr. Molton인 바 그는 주인공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이끌려, Dream Wafer program을 비치료적 영리목적에 쓰려고 오랫동안 불법 도용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었던 지병 조울증 때문에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됩니다. 책의 끝 부분에서, 주인공 Dr. Jupitren이 그 제자의 악한 의도와 도전을 어떻게 다루면서 이야기가 끝나느냐 하는 것은, 일독하시는 독자들이 발견할 몫입니다.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과학 전문 용어를 일일이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 책을 영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난해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꿈에 대한 사실들을, 대화 형식으로 되도록 쉽고 흥미롭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꿈을 꾸는 모든 분들, 그래서 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소설의 일독을 권합니다.

Internet에서 Amazon.com Books에 뜨는 창에 Dream Wafer를 기입하시면 책을 찾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자 이 한수



이발

임낙중(59, 메릴랜드)



내가 한국을 떠난 1967년대까지 이발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여름에는 선풍기로 더위를 쫓고 겨울엔 이발소마다 큰 난로에 물이 따뜻하여 이발소에 들어서면 몸이 우선 훈훈해졌다. 겨울에도 더운물이 많이 필요하니 난로는 늘 더웠다.

이발의자에 앉으면 하얀 이발가운으로 머리만 내놓고 몸과 의자를 모두 가려준다. 하얀 가운으로 온몸을 가리는 순간 마음은 포근해졌다.

이어서 이발사의 뒷머리 가위질 소리가 사각사각 나기 시작했고 나는 어느새 잠이 들곤 하였다. 끝 같은 단점이었다.

이발의자가 많은 이발소는 십여대가 넘는 곳도 있지만 나는 의자수가 대여섯 안쪽이 마음이 편했다.

가위질이 끝나면 따뜻한 물타월로 턱과 목을 덮히고 면도를 해주는데 면도날을 가죽띠에다 가는 소리 또한 기분이 좋았다.

면도가 끝나면 머리를 따뜻한 물로 감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머리를 감은 후 다시 이발대에 올라 앉으면 얼굴과 머리에 머릿기름(깃구)과 미안수 등을 발라준다.

한 달에 한 번쯤 촛농 광내는 날이었다. 머릿기름(깃구)을 바르면 머리는 번쩍거렸고 나중에는 촛스텝게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멋도 있었다.

이발하는 동안 낮잠도 잤겠다 얼굴에 이것저것 발랐겠다. 이발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서는 바깥바람이 상쾌하고 혹시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미국에 오니 이발소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미국 이발소에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으니 이발기로 뒷머리를 대충 밀고 나서 가위질도 하는등 마는등 하고는 면도도 안해주고 머리도 안 감아 주고는 솔로 머리카락을 솔질하여 털고는 돌려보낸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 샤워할 때까지 깎은 머리카락이 내의에 묻어 근지럽다고 겁까지 준다.

나는 미국 이발소가 겁이 났다.

인턴을 하면서 홀애비 한국 의사끼리 이발기계를 사다가 서로 머리를 깎았다.

아내가 육개월 후에야 도미하여 왔는데 그 때까지 쥐뜯어 먹은 머리를 하고 다녔다. 아내가 펍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발의 해결이었다. 이 육개월간이 나의 이발 수난기였다.

한국의사들끼리 서로 머리를 깎았으니 의사 이발사가 고급인력(高級人力)이기는 한데 평생 처음 하는 머리 깎기 솜씨라 불평이 있어도 서로 꼭 참고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는 병어리 노릇을 했다.

다른 것은 다 발전했다는 나라가 어찌하여 이발은 후진국 한국만 못한지 불가사의(不可思議)의 하나였다.

아내가 미국에 오자 인턴일이 너무 바빠 이발하러 병원 밖으로 나갈 틈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발을 아내 뒤편으로 정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내 요구하는 대로 말을 잘 들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아내가 손재주가 있어 한국의 이발사 못지 않게 내 머리 모양을 만드니 나는 이발복이 있는 셈이었다.

아내는 간혹 이발비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처럼 남편이발을 해주는 여자가 어디있는가 라며 팔자타령 겸 생색을 내기도 했다.

생색을 내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겠으나 나는 이발하는 날 만큼은 아주 저자세로 언어 행동거지를 삼가 조심했다.

자동차를 타고 가서 머릿털이 내의 여기저기에 박혀서 돌아와 다시 샤워하고 머리 감는 것 보다는 좀 수모를 담하는 것이 낫다 싶어 꿀 먹은 벼어리처럼 아내의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근 오십년동안 아내가 내 머리를 깎았다. 한 달에 한 번, 한 번에 십불씩 쳐도 오십년이면 육천불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육천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때문에 안 주는 것이다.

아내에게 고마운 일이 어찌 그뿐일 까미는 돈으로 쳐서 갚는다면 아름답지 못한 선례(先例)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글로라도

남겨야겠다.

내 이발역사는 미국 이민 한국인 의사의 역사의 일부다.

내가 미국에 건너온 후 한국에 많은 이발소가 퇴폐업소가 되고 동네 소문의 집산지였던 동네 이발소의 옛모습도 경찰 검문의 표적이 되었다는 풍문이 들려와 착하던 이발소가 옛날애기가 되었다. 그렇게 변한 이유를 지금도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한 때 퇴폐이발업소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일어난 적도 있었지만 옛날의 착한 이발소가 그림고 발전이라는 것이 때로는 퇴행(退行)도 한다는 좋은 예(例)로 삼는다.

옛날처럼 이발봉사에다 다른 미장봉사를 해주는 곳도 아직 있기는 한데 요즘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큰 호텔 안에 소재한 이발소라고 하는데 내가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 어떤 호텔에 가서 커피 한 잔에 만팔천원 주고 마시고 나서 내가 바보스럽게 느낀 일이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땅 값이 엄청 비싼 서울에서 그만큼 받아야 호텔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별볼일 없는 은퇴한 의사가 그만큼 값을 치를만한 불일이 있을까 싶다.

머리가 백발이 다 되데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들성들성 하니 빗질과 hair spray로 간신히 머리 모양을 부풀려서 외출할 때마다 만드는 형편에 비싼 호텔 이발소를 들리기는 싫다.

아내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이제 이발해 달라고 하기가 애처롭다.

내 머리카락이 다 빠져 깎을 머리가 사라지는 날과 아내의 손마디가 못쓰게 되는 날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닥쳐올지 늙어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저울질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이발사였던 분이 옛날 박대통령의 머리를 만지던 추억을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보았다.

새까만 윤기 나던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거의 오십성상 내 머리를 다듬어준 아내와의 인연만 해도 눈물 흘리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보다 장구한 인연이니 어찌 돈으로 셈할 수 있으랴.

근 오십년을 다가오는 나의 이발사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 이 글을 썼다. 내게는 소중한 역사의 일부다.

임낙중의 이발사(史)라고 불러두자.

새로운 꿈

유효명(64, 미시간)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세상은 아름다워라. 누가 뭐라해도, 자네와 함께 있는 한,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친구여,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가? 어렸을 적 그 큰 꿈을? 청년 때의 그 큰 포부를? 장년의 왕성했던 professional life를? 노년의 지금은? 행복했던 지난 날을 반추해 본다. 미지의 앞 날을 눈으로 바라본다.

친구여, 앞 날이라고? 어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새 꿈을 꾸어 보자. 성숙한 새 꿈을.

새 꿈이 있어야 새 땅에 이르지. 더욱 지혜로운 삶, 더욱 분별력 있는 삶, 더욱 영적인 삶을.

나누는 삶, 섬기는 삶, 겸손의 삶, 희생의 삶,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버리는 삶, 행복은 여기에 있다. 행복이 잠긴다.

친구여, 함께 삶을 나눌 때, 행복하여라. 행복을 누린다.

(나의 생의 반려자를 소개한 친구를 생각하며)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Fort Lee 풀림
참석: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량 서인석 이선희 사무장 Jamie Kim
이원택 편집장은 한국방문 직후라 전화로만 소통.



서윤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 내년 Convention, Annual December Ball에 대한 광고교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난 9월 이사회 초록이 형식상 수정이 요구된다고 전회장인 서인석 편집위원의 지적이 있었음. 새로 만든 수정안을 초록의 작성자인 신원석 총무에게 보여주고 이에 동의를 하면 시계탑에 게재하기로 했음.

원고 중에 정진목, 임낙중,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량, 이건일 등 이분들의 글과 이선희 동문의 GP에 대한 영문 원고는 모두 이견이 없이 게재하기로 했음. 다만 이흥빈 동문의 원고는 작품의 형식이 또 문제가 되어 철자법의 수정을 거쳐 돌려드리고 의견을 묻기로 편집회에서 결정 했음. 파격적인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대로는 우리 회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함. 조중행 동문의 시 "인공심폐기" Heart Lung Machine" 은 한글, 영문 두 가지를

병행하여 올려주자는 의견과 한글만 실고 영어는 절대로 실지 말아야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정확히 대등하여 결정을 못내리고 이원택 편집장에게 그 기부를 결정하도록 미루었음. (이번 만 허락하자는 것도 논의됨)

고 김익창 동문에 대한 기사가 더 추가될 것이고 남가주지부의 김동훈 회장이 보낸 원고와 사진을 환영하며 다른 지역동창회나 동기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 오도록 할 것을 다짐함. 지난 봄에 있었던 사진전에 입상한 임중식(57년)동문님이 Express로 보내오신 CD에서 'Machu Picchu, Peru' 사진을 실기로 함. 80세의 노인장의 나이에 고산지대에서 찍은 작품이라 더 돋보임. 이 분은 사진전에서 받은 상금을 동창회에 반려하였음. 어제 귀국한 이원택 편집장과는 진행도중 소통이 있었음.

기타 동창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촬영(참가자 중 이선희 빠짐)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끝냄. - 이원택 편집장의 부탁으로 서윤석 씀

PS: 고교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서윤석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조중행 동문의 영문시 게재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영문도 병행해서 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영어 생활권에 몸 담귀온 동문들이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흐름인 동시에 북미주동창회의 특징이자 미래지향적 행보입니다. 어차피 이중언어를 구사할 바엔 양쪽을 다 포용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 일것 입니다. <시계탑>이 원칙적으로 한글신문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가능한한 작가의 의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편집장 이원택

정정 합니다

64년도에 졸업하시고 17대(1988~1989) 총무로 봉사하셨던 홍준표 동문의 이름이 지난 7월 새로 발간 배포된 2015 Directory의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연혁' 에서 홍준호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점심 얻어먹기

이 권 일(68, 남가주)

여행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작은 일들. 당시에는 큰일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나 놓고 보면 즐거운 추억이 되는 법이다.

떠르고 떠르다 찾아온 세잔느 (Paul Cezanne)의 고향 엑-장-프로방스(Aix-en-Provence), Hotel Villa Galicci에서 주는 아침을 잘 먹고 세잔느의 산, 생트 빅뜨와(Montagne Ste. Victoire)를 보러 떠났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여행 중 만나는 비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나는 비가 오는 것이 오히려 좋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어디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섰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 지나가는 차들도 별로 없어 운전하기 편하다. 산을 끼고 구비구비 도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피어 있다. 별로 키가 크지 않은 관목에 핀 꽃이다. 내리는 빗속에서 그 색깔이 더 선명 해 보인다.

여행을 하면 부부사이에서도 평소와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특히 오늘 같이 비가 오면 차속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이어졌다.

살림살이, 앞으로 살 일, 아이들 이야기, 그 동안 섭섭하였던 이야기(이것은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 등등, 참 서로 잘 풀렸던 부분도 더 분명해 지고 앞으로 더 좀 주의하여야겠다는 생각도 풀래 해본다.

생트 빅뜨와 산을 직접 가까이서 보니, 세잔느가 왜 그러도 그 산을 좋아하여 그의 그림 소재로 자주 애용하였는지를 이해 할 것 같았다.

우선 산이 잘 생겼다.

서쪽으로 향한 앞면이 높이 솟아 있는데 거위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다. 산은 동서로 길게 누워 있어 이 주위를 한 바퀴 둘러면 하루 종일 걸리게 생겼다. 나무도 별로 자라지 않는 돌산이며 그의 그림에 그려진 그대로 이다.



Chateau de Vauvenargues

한 30여분 달려가다 보니 보방날그성(Chateau de Vauvenargues)이 안개 같은 비구름 사이로 나타난다. 일반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라 들어가려다 말고 차를 돌려 나왔다. 이곳에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그의 말년을 보냈고 성 앞 공원에 그의 묘지가 있다. 아쉽게도 묘지 참배는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시 산길을 구비구비 돌아 산 북쪽에 있는 리앙(Rians)이라는 제법 큰 마을을 통과 하고 진로를 다시 남으로 잡았다. 이 코스는 산을 끼고 한바퀴 돌게 되는 여정이다.

푸리에르(Pourrieres)라는 작은 마을을 통과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 하는데 마침 결혼식이 있었는데 길이 복잡하여 도로 표지판을 잘못 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지도로 보면 좁은 산길

로 산을 끼고 서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무리 가도 산은 내 뒤에 있고 길이 점점 넓어지고, 저 멀리 고속도로 위를 뽕뽕 달리는 차들이 보인다.

아차 길을 잘못 들었구나. 차를 돌려 오던 길을 되짚어 다시 마을로 들어가 도로 표지판을 잘 찾아 보았더니 먼저 내가 그걸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다. 조그만 표지판이 눈 크게 뜨고 찾지않으면 안되게 숨어 있었던 것이다.

마을을 벗어나 산을 오른쪽에 두고 서쪽을 향하여 달렸다.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어느새 오후 2시가 되어 있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주변도 마렵고 하여 밥 먹을 곳을 찾기로 하였다.

우선 첫 번째 눈에 띄는 음식점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

시골이고 비도 오고 주말도 아니니까 뭐 자리야 있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다.



Relais Cezanne 의 음식

여자 안주인에게 밥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내 프랑스 말 실력은 아주 형편 없으니까 영어 반 프랑스어 반인 대화, 다행히 이 여주인이 기본 영어는 한다.

내게 묻기를 'Reservation?'

내가 'Non, Madame'

'No reservation, no table'

아주 매정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 아! 이 먹는 걸 중시하는 나라에서 비오는 날 시골 식당이라고 무시하고 들어간 내가 잘못이지. 단념하고 돌아 나와 차를 좀 더 달렸다.

다른 식당 간판이 보인다.

들어가 묻는다. 'Dejeuner(점심)?'

주인: 'Reservation?'

나: 'Non, monsieur'

주인: 'Mais, non'

이러기를 두 번을 더 반복 하였다.

차츰 화도 나고 배는 더 고프고, 속으로 '말할 놈의 나라, 비오는 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손님을 문전 박대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만 사나!' 하면서 점심 얻어먹을 것을 단념하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생각 하는데 톨로네(le Tholonet)라는 마을을 지난다. 길옆에 세잔느 여관(Relais Cezanne)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다. 여관이면 대개 레스토랑도 같이 있는 법이라 차를 세우고, 또 쫓겨 날까 보아 나는 차안에 남아 있고 마누라를 들여보내 테이블이 있는지 물어보게 하였다. 좀 있더니 마누라가 나와 웃는 낯으로 손을 흔들며 들어오라고

신호 한다.

사람 좋게 보이는 주인아저씨가 저 쪽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였다. 우리 외에도 몇 명의 다른 손님들이 이미 식사 중이었다.

파리 몇 마리가 뽕뽕 나는 걸로 보아 위생 상태가 그리 양호하여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집이 음식 맛은 더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배웠다.

우선 이곳 지방 산 로제(Rose)를 시켰다. 이번 여행에서는 로제 마시는 것을 배웠다. 미국에서 로제의 개념은 white zinfandel 이라는 포도즙에 설탕 탄 것 같은 이상한 사이비 포도주를 연상하지만, 진짜 본바닥 로제는 아주 드라이한 것부터 단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지방산이라 값이 싸다. 병에 들은 물보다도 싸다.

이 술을 담아 내 놓는 토기로 된 카라페(carafe)의 밑바닥을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 병을 씻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니 그 안이 더러울 것 같아, 그걸 들여다 보면 입맛이 떨어질까 보아서 이다.

보지 않으면 되니까. 아하! 주 요리로 나는 닭고기를 마누라는 돼지고기를 시켰다.

여태까지 어디서 먹어 보았던 닭고기, 돼지고기 요리보다 더 맛있었다. 우선 그 모양이 마음에 든다. 노랑과 빨강, 초록색이 조화된 차림새. 거기에 그 맛 또한 일품이니 네 번을 쫓겨나고 겨우 찾아든 이 식당에서 점심을 얻어먹는 것은 하나의 Serendipity (the effect by which one accidentally discovers something fortunate, especially while looking for something else entirely.) 라고 할 만하다.



Relais Cezanne

점심을 먹은 후 주인아저씨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여기가 세잔느가 산으로 갈 때 쉬고 음식 먹고 하던 곳이며 그가 앉아서 쉬던 자리에 돌로 된 테이블에 그의 이름을 새긴 것이 있다고 그 자리까지 보여 준다.

몇 년 후 아이들 다 데리고 이곳을

"Hello, '체온' 이어라"



이홍빈 (63, 대뉴욕)

(지새끼
곰썩스런
내 막내를 보면)

얼말
안아 보면
그건 체온 아니런

니 사랑
안아 보면
헬로/그건 금새 너희 체온 아니런

안아를 보면
금새 체온 이어라
그건 너희 사랑여라

지극
사랑으로
어린 니 자식/안알 보면

어린 체온
목에 감겨
가만 잠 들었음/더 더욱 따스한

이젠
알것재
사랑/니 에미 니에비

얼마나
따스해라/온 천지 온 세상
어린 니자식 목에 감긴/그 체온 내체온

이제와선
알것재
똑같은 체온/니 에미 니에비

둘러 안긴채/목 감겨 잠들면
지고한 사랑/이세상 이천지 그런 천국
니새끼 네 체온/니에미 네 체온

얼마 남았는
우리 사랑/너희 사랑
여태 여직/그 사랑 우리 체온

어린 니새끼
가만 안아보면
그 체온 그사랑/예전 끔찍한 내체온 우리사랑

내리 내릿사랑/
너희 우리로/지네 너희로 그닥 따스한 천국
니새끼 체온 내체온/그 사랑 우리체온.

되찾아 가서 음식을 시켜 맛을 보니 기억 속의 그 맛이 아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2-3 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 어쩐지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니. 세월이 가니 인걸이 간데없구나.

의사 초빙

PCP or Psychiatrist
남가주 Long Beach & Compton Clinic

- Work (40 hrs/week)
- \$230k (Board Elig) or \$240k (Board Cert)
- 25 days paid time off + 8 paid holidays
- All license fees paid (MD, DEA)
- CEU reimbursement up to 1k/year
- Health and malpractice insurance paid and 401k with match
- Possible student loan forgiveness by government
- J1 Visa Welcome

연락처: 이원택 T: (652) 743-1436
E-mail: wonlee0120@gmail.com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의대 의학도서관을 동문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노후된 현 의학 도서관의 확장과 리모델링 및 내부 확장을 위하여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100억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Naming 예우가 있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현재까지 기부하신 동문들
임종식(57) 10,000 / 이만택(58) 15,000 / 한성수(60) 1,000 / 이승공(69) 10,000
60년 졸업동기(전회근 등) 2,000
졸업 40주년기념 75년 졸업 미주동기: 김원정 2,000 김자역 2,000 박종희 500 박인영 1,000 조철영 3,000 원종수 1,000 한민우 1,000

서울대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

송금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Tel: 212-768-9144
기부금은 501-C-3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한시(漢詩) 이야기

如然 鄭鎮默 (57, 후로리다)

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문화에도 오랜 세월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중국의 전통시인들이 남긴 한시(漢詩)를 본인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예를 좋아하여 훈련을 받다가 차츰 즐기게도 되었습니다. 또 한문서예를 열심히 연마하면서 한시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궁금증과 관심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문서예는 주로 한시를 쓰는 것인데 그런 한시를 이해하면서 서예를 쓰면 예술적인 회열이 배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당연히 한시의 깊은 맛을 정확하고도 깊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순도가 높은 서예를 즐길 수 있으며 자연히 한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시에 대한 역사와 그 격식에 대한 상식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시라고 하면 한나라, 초나라시대의 한나라 사람만이 쓴 시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사람이 중국의 활자인 한문으로 쓴 시를 통털어서 이르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중국의 한시의 모습은 멀리 은(殷)나라 또는 상(商)나라 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까지 쓰여진 황하유역에 흩어진 시들을 공자가 정리하고 집대성한 301수를 최초의 대표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대로는 (BC 1200 ~BC 400)인데 그 시들을 통털어 한(漢)나라때부터 시경(詩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경은 대체로 실용적이고 직감에 의한 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경에서 한 편을 여기에 소개드립니다.

桃之夭夭 도지요요 복숭아꽃은 심상하고
灼灼其華 작작기화 밝고 환하게 꽃 피었네
之子于歸 지자우귀 이 아이가 시집을 가면
宜其實家 의기실가 밝고 환한 집이 되겠네
註: 귀(歸)는 고어로서 시집을 간다는 뜻.

한나라 때에 시경은 가곡(歌曲)이며 일하면서 흥얼대는 노래가라합니다. 한나라의 시는 혜(兮)나 아(憶)같은 감정적인 글자를 중간이나 끝 부분에 넣어 시의 감정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의 구절에는 상관 안하는 편이고 행(行)의 수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 경합은 宋, 明, 淸나라 대에까지 이어갑니다. 칠언절구는 일곱 글자 구(句)와 사행(四行)네 줄로 되고 오언절구는 다섯 글자 구(句)와 사행 즉 네 줄로 됩니다. 이 사행 중에 기승전결(起承轉結)은 첫 행의 기를 이르며 둘째 행의 승은 바치며 셋째는 전을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뜻을 돌리고 결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평측(平仄)은 중국의 사성(四聲)으로 평성(平聲)과 측성(仄聲), 즉 거성(去聲), 상성(上聲)과 입성(入聲)으로 되어있으며 이 평측성은 시를 읊은 Rhythm입니다. 이 편측성을 쓰는 것을 압운(押韻)이라고 합니다.

율시(律詩)는 절구(絶句)와 같은 규격으로 행이 중복되는 시형이며 주로 팔행이 많습니다. 이상의 평측과 글자의 운이 안 맞으면 고시(古詩)라고 합니다. 행의 둘째와 넷째의 글자의 평측은 달라야 하며 이사부동(二四不同)이라고 둘째와 여섯째 글자의 평측은 맞아야하며 이륙이(二六似, 같다는 뜻)라고 합니다. 칠언절구에서는 1, 2, 4행의 끝 글자의 운(韻)이 맞아야 되며 오언절구에서는 (1), 2, 4행에서 끝 글자의 운이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나라 말을 기점으로 삼국시대를 지나 사백년간의 오호육조시대가 오면 죽림칠현이나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와 같이 인간의 생활과 주위의 자연환경에 대한 시를 쓴 경향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깊고 의미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도연명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結廬在人境 결로재인경 초가집을 지어 먼 마을에 살고있으니
意無車馬喧 의무차마선 수레의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네
采菊東籬下 채국동리하 국화를 동쪽의 울타리에서 꺾어들고
悠然見南山 유연경남산 고요히 먼 남쪽 산을 뵈놓고 바라본다
此中有眞意 차중유진의 이 풍경 안에 참다운 의미가 있지만
欲辯己忘言 욕변기망언 아무리 표현해 보려해도 할 말을 잊네

시의 황금시대는 당(唐)나라때 이루어졌습니다. 詩仙(시선) 李白(이백)-이태백과 詩聖(시성)-杜甫(두보)를 위시하여 杜牧(두목)-白樂天(백낙천)-백거이(白居易), 孟浩然(맹호연)같은 수 많은 명시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때 시작한 칠언절구, 오언절구와 오언, 칠언 율시(律詩) 그리고 절구와 압운(押韻), 기승전결, 대구(對句), 사성, 즉 평측성(平仄聲)의 규범이 생김과 그 여파로 중국의 古詩(고시)또 근대시(近代詩)가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생긴 현대시(現代詩)와는 다릅니다. 당(唐)나라 시대의 세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1. 춘효(春曉) 봄새벽 - 孟浩然 작 오언구절입니다.

春眠不覺曉 춘면불각효 새벽의 깊은 잠은 새벽이 운졸도 모른다
處處聞啼鳥 처처문제조 사방에서 새울음소리가 들린다
夜來風雨聲 야래풍우성 지난 밤 비바람 소리 들렸으니
花落知多少 화락지다소 꽃이 많이 지고 말았겠네

2. 정야사(靜夜思) 고요한 밤 나는 생각 - 이백(李白)작 오언절구

壯前看月光 장전간월광 침대 앞에 비치는 달빛을 보니
疑是地上霜 의시지상상 땅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舉頭望山月 거두망산월 머리 들어 산에 걸린 달을 바라보다
低頭思故鄉 저두사고향 머리 숙여 고향 생각에 잠긴다

註: 이 시(詩)는 거두(擧頭)와 저두(低頭) 등 대구(對句)가 잘 되었고 기승전결(起承轉結)과 압운(押韻)도 틀림이 없습니다.

3. 양귀비(楊貴妃) - 백낙천(白樂天)작 칠언절구

春寒賜浴華清池 춘한사목화청지 찬 봄에 화청지에서 목욕함을 받는다

溫泉水滑洗凝脂 온천수활세응지 온천수는 미끄러운 몸의 기름을 씻는다
侍兒扶起嬌無力 시아부기교무력 시녀가 부들켜 이르면 기운 없이 교태를 부리며

如是新承恩澤時 여시신승은택시 처음으로 새신방에서 은택(恩澤)을 받는다
註: 은택은 황제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은혜라는 뜻

4. 우성(偶成) - 즉흥시 - 주자(朱子) - 주희(朱熹) 송나라

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이로학난성 늙기는 쉽고 학문을 이르기기는 어려우니
一寸光陰不可輕 일촌광음불가경 적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未覺池塘春草夢 미각지담춘초몽 언뜻가에서 봄꿈을 깨지도 못하는데
階前梧葉已秋聲 개전오엽기추성 뜰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소리를 내네

註: 주자는 성리학(성리학)의 원조이며 이 사상은 이조(李朝)의 국시(國是)였 습니다.

명나라 청나라때의 작품은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현대시를 소개합니다. 현대시(現代詩)는 20세기 후의 시로 많이 다릅니다.

5. 원화근(遠和近) 먼 곳과 가까운 곳 - 고성(顧城)작 1980 중국

汝	여	너는
一會看我	일회간아	나를 잠시 보고
一會看雲	일회간운	구름을 잠시 본다
我覺得	아각득	나는 안다
汝看我時限遠	여간아시한원	내가 나를 볼 때 한없이 멀고
汝看雲時限近	여간운시한근	내가 구름을 볼 때 한없이 가깝구나

註: 一會: 잠시

다음은 한국의 선현(先賢)이신 이이(李珣)-이율곡(李栗谷)의 시를 행초서(行草書)로 저의 줄필(拙筆)로 쓴 것이 있는데 원 시는 오언율시(律詩)입니다.

林亭秋已晚 임정추기만 숲 속 정자에는 벌써 가을이 깊고
巖客意無窮 소객의무궁 뜻도 모르고 한없이 떠드는 객들
遠水連天碧 원수연천벽 먼 데 있는 물은 푸른 하늘에 이어지고
霜風向日紅 상풍향일홍 햇살 받은 서리맞은 단풍은 더욱 붉다
山吐孤輪月 산토고윤월 외로운 둥근 달이 막 산에 떠올랐는데
江含萬里雲 강함만리운 강은 만리에 구름을 품고있네
塞鴻何處去 새홍하처거 감췄던 황새는 어디로 가고
聲斷暮雲中 성단모운중 저녁노을 구름 속에 울음소리가 끊어지누나

註: 십만 양병설을 말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자기의 심정을 쓴 시로서 그의 복잡한 심경이 보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작품인 칠언절구 古詩를 소개합니다. 1990년경 만리장성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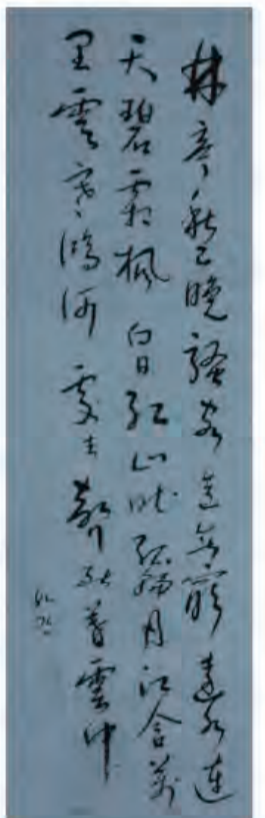
萬里長城 만리장성 척병(斥兵) - 如然 鄭鎮默

凍土長城馬蹄聲 동토장성마제성
얼은 땅 쳐들어오는 말굽소리 크고
塞外北風乾木震 새외북풍건목진
장성밖의 북풍은 마른 가지까지 떨게하는데
慾願老親平安睡 욕원노친평안수
원하건데 고향의 노친께서 평안히 주무시기를
健兒勿恐蒙胡兵 건아들공몽호병
씩씩한 남아는 몽고나 호나라 군사를
겁내면 안되리라

운과 기승전결은 칠언절구로서 잘 되었다고봅니다. 對句(대구)나 평측(平仄)은 자신이 없습니다.

註: 본인은 1957년 의대를 졸업하자 곧 미국으로 와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Lima Ohio에서 근 30년간 서운석 총동창회장님과 사이좋게 이비인후과를 같이 개업한 후 1995년 은퇴하여 Orlando, Florida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시인이자 Radiologist인 마종기(Dr. 馬鐘基, 세브란스, 서울의대 대학원 졸업)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시계탑 편집위원님과 과 이원택 편집장님께 고마움 가득합니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그림, 사진, 서예,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졸업년도, 거주지, 간단한 작가 소개 및 본인 사진과 글에 관계되는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아래하 한글 바탕체 10호 행간 160% 또는 Word를 사용한 Text로 e-Mail로 보내주시고 모든 산문은 A-4 용지 2매 이내, 논문이나 기행문은 4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SNUCMAA of NA (Sigetop)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e-Mail: snucmaa@yahoo.com

Oct. 10, 2010 Rainy day "Machu Picchu, Peru"



임종식(57, 메릴랜드)동문 작품 Climbed 180 steps at the age 80, If any one need copy please contact to Johng S. Rhim, jhim@verizon.net

Three Valley Gap, British Columbia 에 있는 호텔과 그 반영



설명: Three Valley Lake Chateau와 호수에 비친 반영입니다. 반영(reflection)을 찍으려면 호수 같은 넓은 물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없이 물이 잔잔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입니다. 바다에는 항상 바람과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반영 찍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사진은 대체로 주제를 위나 아래의 삼분의 일에 놓는 삼분할법의 구도를 사용하지만 반영은 주제를 가운데에 놓아 아래 위가 대칭되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주위의 풍경을 보이기 위하여 주제를 중심보다는 약간 아래로 잡았습니다. 사진에서의 규정은 권장하는 것이고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변경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사진정보: 찍은 시간 오후 7시, 노출시간 5초, 조리개값 F/11, ISO 100
나두섭(73, 남가주)



색소폰 길들이기

서 량(69, 대뉴욕)

전압조정기 불량품을 돌려 주려고 전자상회 앞에 차를 세울 즈음 라디오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1악장이 흘러나온다 쇼스타코비치는 '코' 하는 음질에 악센트가 콕 들어간다 이 곡은 그가 19살에 작곡한 곡 나는 19살 때 무엇을 했나 고전형식에 대들면서 무조(無調)의 멜로디를 추구하는 음표들이 난해한 예술성으로 차 안에 쿵 갇힌다

당신 손등에 내 손가락을 스치듯
새뜻한 색소폰 음정을 가능한다
입꼬리를 오므리자 졸지에 4분 음표 허리가 휘어지는 건
그건 그야말로 전격적인 충동이었어 나는 깜짝 놀라
음의 진폭을 추스른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색소폰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급기야 당신은
내 지배를 순순히 벗어난다

전압조정기를 인터넷에서 주문해야겠다며 집에 오는 내 앞으로 기아 자동차 한 대가 끼어든다 영어로 기아는 '키아'라 해요 코리아도 그렇지만 케이(K)가 들어가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라디오에서 아직도 '코'에 악센트가 힘차게 들어가는 쇼스타코비치 1번 교향곡이 흘러나오는 중 나는 19살 때 담배를 열심히 피웠고 문예반 시화전에 꼭 참가했고 고전형식을 무서워한 것이 다다 쇼스타코비치 1번 교향곡을 차고 앞에 차를 세우고 끝까지 듣는다 충격을 올라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테너 색소폰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 「문학과 의학」 (2015)에 게재



1980년 초 Long Island Jewish Hospital 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끝내고, 30여년간 한인동포들의 건강을 위해 정진해 왔던 정진우(72)동문이 느닷없이 개업을 청산하고, 10월말 두 아들이 살고있는 남가주로 이주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홍성 출신답게 집안에서 온갖 채소랑 꽃나물을 재배해 동문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남이다. 또 한 명의 자랑스런 복덩이 동문을 맞게되는 남가주지부 김동훈 회장 및 동문들께 축하를 드리며 정 동문 및 가족들의 행운을 빈다. (맨 왼쪽이 정진우 동문, 바로 오른쪽에 앞아있는 피아니스트인 미세스 정. - 서인석(73, 대뉴욕)



쌍 무지개
옛그제 무지개가 뜨더니
오늘은 그것도 쌍무지개로 또 떴네
내가 무척이나 보고싶어서일까
약수라도 한번 해볼려고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눈물만 댄뿔 남기고 황급히 떠나버리드라 - 소수 김택수(63)

It has been almost a decade since the GP(Green Project) committee was created and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vitalize the GP section of the association. Many alums have served the committee selflessly and yet each year has witnessed varying degrees of success. Recently, some of us who deeply care about the future of the GP have gathered together and considered a way to crystalize what we have learned about GP activities over years. Such collective wisdom could not only lead to some guiding principles for future GP work but also propose new policies that will help the GP work to succeed. To that end, we have generated a document, which we called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This document has been communicated to the current leadership of the association, who has suggested that we publish this in the Sigetop. The idea was to have the broad readership ponder the document and voice their responses in a fashion that can be collected as a consensus. Here, we present Part 1 of the GP white paper in this edition, in which we describe how GP work was started, why GP work is critical for the future of the association and how we view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er alums. Part 2 of the white paper will be published in the next edition, in which we make recommendations for operational paradigms as well as new policies. Part 2 of the white paper will be accompanied by a survey, which will offer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an opportunity to voice their opinions on the white pap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policy changes and recommendation.

The Green Project White Paper, 2015

1. The Birth.

A pressing need for enhancing the membership of younger alums (referred to as green alums henceforth) has been well recognized within the association. In 2005, these concerns were translated into an organized effort to foster younger alum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The term, "The Green Project", was coined to denote these efforts collectively, and a governing committee was constructed, called "The GP committee".

From the outset, the objectives of GP activities were not only to incorporate young alums into the association but also to aid them to settle and grow in this new and foreign environment. GP activities spanned over various domains, such as identifying new members, incorporating them into the association, and enhancing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members, which led to many successful anecdotes in each domain. These successes are attributable to organized efforts led by the association as well as to selfless efforts of a handful of individuals at any point in time.

Nevertheless, the GP membership has failed to grow and GP committees have been thrown back to the drawing board every year to seek better strategies. Clearly, we are in dire need to systematically address this, which led to this document generated as a white paper for the GP.

2. The Pressing Concern.

An inescapable truth is the aging of the membership overall, since a much smaller number of SNUCM graduates immigrate into the U.S in recent years than in the previous. The mean age of all members is 74 in 2015, leaving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the membership in a shape of an inverted pyramid. It is unmistakable that this trend threatens the existence of the association over long term, which constitutes the main thrust for all our efforts to enhance the GP membership.

Enhancing the GP membership is not a trivial task. GP activities strive not only to have young alums come and be registered to the association but also to establish a cohort of young alums who are capable and willing to lead the organization in time. To that end, the newly inducted member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ssociation as well as deeply engaged with the cause and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our efforts to recruit younger alums were not always met with success.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young alums were introduced to the association and yet were never to return. In many occasions, senior and green members have expressed a prevailing sentiment that they could not feel fully connected even when they were together at the convention.

Year after year, young alums were identified and brought to the convention; yet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ohort. How could this b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among the officers of the association that the less than desired outcomes of our GP activities may reflect some fundamental issues that may cut across many sectors of the society, i.e., the cultural gaps between generations.

The membership of our association spans over 6 decades. During the collective lifetime of all our members, the Korean peninsula has witnessed the World War II, Korean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 from an underdeveloped to a prosperous. Some of our senior members came to U.S. before JFK was the president. Following cohorts started their first days in the U.S., shocked to face the overly free spirited youths in the festivals in Woodstock, NY. Subsequent waves of our alums started their residencies, knowing AIDS as a sure killer.

Time has changed. So have our alums.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seniors and younger members with respect to the culture, values, way of life, mode of communication, and etc. The basic tenet of this document therefore argues that the unsatisfactory outcomes of previous GP activities resulted at least in part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younger alums. We thus propose that GP activities are to be reshaped by incorporating the components that will reflec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nerations. Finally, we recommend that some of the needed changes are stipulated and adopted as policies, so that they will endure the change of hands among the officers over years.

3. Who are GP alums?

A) Demographic Identity. For operational purposes of the association, GP

membership was defined as SNUCM alums who graduated since 1980. Alums in greater need of vetting, however, will be those who graduated after 2000. Presently, 47 alums have been identified including the class 2000 through 2015. All these alums have been contacted multiple times by the GP committee over the last year. Nonetheless, only 15 green alums in this group have attended the 2015 annual convention, indicat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group is presently not engaged with the association. Also of note is that the number of unidentified young alums is not insignificant, again highlighting an urgent need for further work.

GP members can be grouped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ir careers relative to training; a) Pre-training, b) In- training and c) Post-training. The pre-training group includes alums who have arrived in the U.S. recently and would be seeking a training program, i.e., a residency, fellowship or graduate program. As exciting as this phase could be, it could also be the darkest times in their careers. Most often, these alums work in unpaid positions and support themselves with their own funds. It is a period that they could use help of senior alums for career guidance, network or even moral support.

The in-training period offers some sense of stability and yet often demands further search of better options for the current or future phases of their careers. Financially, they are still under a great strain with the rate of compensation not much exceeding that of the minimum wage with all working hours accounted for. This is a period, in which the alums may wish to obtain guidance specific to their specialty areas from senior alums of the same expertise.

The post-training alums are at the stage of being junior faculty or staff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s or in the processes of launching private practices. They have recently completed the long and winding road of their training and finally reached where they might have wanted. Various career options are no longer theoretical but realistic possibilities at hand for these alums. These alums could benefit greatly from connecting with senior members who have gone through similar paths and being privy to their personal experiences of their careers. These exposures will be a unique vintage point for being part of the association, which may not be readily feasible otherwise.

As noted above, the current the GP membership is inclusive of alums who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since 1980. This categorization adds even those who finished their medical school education 35 years ago as GP member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is is over-inclusive and as such has often been a topic of debate. The rationale for this arbitrary determination, however, was that younger alums will need support from senior members, which will be provided by inclusion of more senior members. This original design certainly reflects the intent to support for green alums, yet it does render the membership two tiered; the young alums and their supporters. In consideration of these and after multiple discussion including green and senior alums, we propose that the GP membership could consist of the two categories, the GP proper and the honorary GP, so that definition of true GP alums is more age appropriate and yet supporters of more senior members will be included as they wish.

B)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green alums. Deconstructing the mindset of a generation will be beyond the scope of the GP work. In the following, we have pondered our recent experiences with green alums and attempted to extract what appear to be their shared characteristics as follows.

i) Green alums as a minority of their classes. Many senior alums came to this country along with many other classmates. Thus, connecting with the association was a natural step in their efforts to interact with their peers. Alums of younger generations, in contrast, came here as a minority of their classes. In recent years, there are classes that yielded only a few graduates who have chosen this path. As a consequence, it is no longer a compelling step to connect with the association as it was for seniors and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them to identify with other alums in the association.

ii) Preference for the personalized interactions. One of defining characteristics of younger generations could be their preference for personalized nature in their interactions or communications. In the past, it was a societal norm that individuals were expected to find values in or commit to the causes derived from their relations with the communities that they were part of, such as the family, community or nation. Generations of this century, however, appear to have difficulty relating directly to these entities, often feeling that such relationships are merely nominal and their individuality is not supported. Perhaps well reflected in the popularity of the Facebook in our times, younger individuals prefer to communicate with their very personal aspects recognized and responded to. Indeed, time and time again, we found that our younger alums are much more responsive to personalized communications and personal relationships.

iii) Aversive reaction to hierarchy. The conventional Korean culture was built on a hierarchical structure modeled after the Confucianism. In this paradigm, seniors have the authority to steer the community while juniors trust their leadership and draw sense of security from following them. Here, juniors are "talked to" not "talked with", or "told to do", not "consulted for preferred actions". This top to bottom mode of operation has sustained human society through thousands of years. A clear trend in this century, however, is that the vertical nature of the power dynamics is no longer effective and has shifted or yielded to a horizontal one. One of the sentiments that was often expressed by green alums in the past was that they felt "talked down to" or "commanded to", not necessarily invited to share their thoughts and interest. It will be important to incorporate the wishes of green alums to be responded to based on a horizontally defined social structure and interactive dynamics in the association.

As we identify these a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green alums, we then considered how they could be utilized to inform our approaches to them (in Part II...to be continued in the January 2016 issue).

- The Green Project Committee: Chang-Gyu Hahn (81) Young-Jae Nam (94) Mooyeon Oh-Park (89) Myong-Ho Nam (81) Sunhee C Lee (81)

해외 의학 연구 결과 보고서

실습기관: Department of Hematology & Oncology, Benign hematology, Milstein Hospital,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CUMC),

실습기간: 2015년 7월 1일 - 31일

연구배경과 지원동기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되었던 이유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및 임상연구 수준과 교육체계를 비교하는데 이 곳이 가장 걸맞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컬럼비아 의과대학병원의 여러 분과 중에서도 내과, 혈액종양분과는 현재의 임상 의학 연구분야, 중개의학분야에서도 최전방에서 의료분야를 선도하고 있기에 더욱 경험해보고 싶었다.

학부 전공인 약학과 의학의 융합점을 찾고 임상에서 현재 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구성된 곳에서의 수준 높은 임상경험과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컬럼비아 의과대학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 접근법과, 의학적 논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경험해보는 귀중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임상지식의 습득을 통해 기존의 진단과 치료를 이해하고 이에 익숙해진다면 현재 치료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추후 미래 연구를 통한 개선점을 찾고 연구분야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과 Milstein Hospital을 이어주는 구름다리

목적

- 1)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하 CUMC)의 학생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의학지식을 체계화하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 2) CUMC의 진료와 치료에 직접 참여하여 의료진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병원의료체계를 이해한다.
- 3)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학생활동 매뉴얼과 교과 과정 등 교수법을 관찰하며,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가치관을 배운다.
- 4) CUMC의 translational research 분야의 최첨단 인적, 물적 자원을 체험하고, 연구단지를 견학, 앞으로 세계의 학이 나아갈 방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미래 발전상을 모색한다.
- 5) CUMC 실습일정 이후, 경험한 바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과대학 학생들과 공유하여 향후 의료세계화를 준비한다.

실습 내용

A. Inpatient consult

병동입원환자의 혈액학 자문의뢰가 들어왔을 때, 환자의 의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진과 검사를 통해 진단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Consult 의뢰내용은 주로 TTP, ITP, DIC 등의 혈소판 관련 질환, anticoagulation management, HIT

연 회 라 (의학과)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coagulation factor deficiency, anticoagulant management, 악성질환의 감별, 빈혈의 감별이었고, 이에 따라 환자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환자의 기저질환, lab finding, PBS finding, bone marrow biopsy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적절한 진단이 내려지면, 이에 맞추어 적합한 치료를 행하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B. Outpatient clinic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식과 환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의료체계를 체험하고,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를 관찰하였다.

C. Educational Lecture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에 걸쳐 3시간의 educational lecture가 이루어졌다. 모든 lecture는 혈액종양내과의 fellow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이를 참관하였다.

- 1교시는 oncology에 관한 강연으로 7월 한달 간은 유방암에 대한 주제로 매주 유방암의 조기 검진, "조기 유방암의 치료, 진행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 매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관해 진행된 연구들의 저널리뷰를 중심으로 evidence based medicine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 2교시는 benign hematology의 강연으로 주로 자주 접하는 consult의 내용을 다루었다.

- 3교시는 말초 및 골수 혈구세포의 현미경적 분석에 대한 강연을 주제별로 다루었다.

D. Morning conference & Hematology/Oncology Grand Round

의국 회의를 통해 환자증례를 분석하고, 해당질환과 연관된 임상시험의 연구에 대한 저널을 리뷰하고, 연구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E. Translational Research

CUMC에서 수행중인 임상시험 의국 회의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clinical trial에 대해 관찰하였다.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및 연구 코디네이터 등 여러분과의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회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연구 수행을 위한 점검사항들을 조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배운 점과 느낀 점

해외의학실습을 통해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으나,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과 다른 미국의 전반적인 병원의료체계를 배우는 것, 둘째는 CUMC의 연구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실습의 과정에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실습전반일정과 진행사항

첫 주는 함께 실습하는 두 명의 컬럼비아 의대생들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문진하고 환자와 rapport를 쌓으며, 어떻게 의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차근차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EMR에 접속하여 어떻게 결과들을 확인하고 과거 기록을 열람하는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나의 case를 배정받는 대신 consult가 들어온 모든 환자에 대해 학생들과

펠로우들이 문진할 때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가능한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환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네 번째 주부터 다섯 번째 주에는 본격적인 consult와 presentation을 하였다.

Benign hematology consult는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primary care team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혈액학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consult를 의뢰하면 이에 대해 자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fellow들은 펠로우실에서 상주하면서 호출이 오면 해당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 업무였다. 또한 consult 의뢰 외에도, 여러 분과에서 진단을 위해 PBS에 대한 리뷰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소견을 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주로 consult 의뢰는 오전에 들어오며, 병동 회진은 오후 4-5시 사이에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혈액학 상담의 목적을 파악하고, 현재 환자의 혈액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검토하고, 기저질환을 살펴야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평가, 치료방안 제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질환에 대한 의학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한국에서의 실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가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환자를 만나고, 차트를 리뷰하면서 직접 학생 스스로 assessment와 plan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의 실습에서는 주로 진단이 이미 내려진 환자를 배정 받았고, 환자를 만나 병력을 청취한 이후부터는 기존의 EMR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의 대부분이 있었다면, 이곳에서의 실습은 환자를 만나 문진, 신체검진을 하는 것과 동시에 EMR의 자료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단과 치료계획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 달랐다. 따라서 환자를 만날 때도 피상적인 질문보다는 진단적인 clue를 얻고, 감별진단을 위한 논리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던져야만 했다.

연구 환경

임상실습과 더불어 혈액종양분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월요일에 있는 lecture 세 시간과 화요일 오전 컨퍼런스는 원래 펠로우들을 위한 모임이지만, 가급적이면 펠로우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와 lecture를 모두 다 참석하였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화요일 오전 컨퍼런스 였는데, 첫 부분에 증례발표와 질환 리뷰를 간략히 하고 난 후, 이를 위한 최신 치료 동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최근 저널들을 리뷰하고, 혈액종양분과 연구 담당 교수들이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따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치료적인 접근법과 더불어, 연구수행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교수님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화요일 컨퍼런스 이외에도 lecture와 grand round를 통해 의학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또 한가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다. 즉, 의학주제에 대해 발표를 할 때 잘 된 발표와 그렇지 않은 발표들을 보면서 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표현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Fellow 1, 2년차에는 임상업무가 주되고, consult나 외래 clinic을 많이 참여하지만 fellow 3,4년차부터는 임상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리서치에만 모든 시간을 할애하도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3,4년차에는

리서치를 위해 각자가 원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설정하고, 혈액종양분과 내의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 중 한 분을 연구지도교수로 삼아 진행할 수 있었다. 펠로우 중 한 명은 new drug development와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였고, 다른 한 명은 clinical trial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들의 권유로 phase 1 clinical trial meeting과, leukemia drug candidate development와 관련하여 랩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CUMC에서 basic science lab에서의 새로운 물질들을 clinical field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교육과정

실습하면서 친해진 컬럼비아 의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총 4년인데, 초반 14개월 동안 (3학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교육받고 4번째 학기부터 12개월간 임상실습을 시작한다. 그 이후 2개월 간 의사국가고시(board)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step 1 USMLE) 그 이후 4학년이 시작되는데, 졸업 이전까지 elective courses, 즉 선택의학 실습을 6개월간, 그리고 Scholarly project를 최소 4개월 이상 하게 되고, 이 때의 실적물에 대한 review와 approval을 받아야 졸업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4학년 동안 틈틈이 스스로 USMLE step2를 준비하게 된다.

함께 Hematology consult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분과 4학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학생들로(미국은 여름에 학기가 시작하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선택의학실습을 하면서, 이에 맞춘 scientific research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는 선택의학실습 4-5주와 함께 이어진 여름방학 4주를 합하면 고정적으로 총 2개월 정도가 자율 선택의학임에 반해, 컬럼비아는 누적 4개월의 시간을 1년 동안 자유롭게 분배하여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자신의 관심연구주제를 좀더 오랜 기간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보였다.

마무리

실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부담은 낯선 환경과 언어였다. 그렇지만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전임의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실습했던 컬럼비아 의대생들 모두, 내가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었기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적응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펠로우실에 있는 2년차 전임의들 모두 한결같이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에 환자를 만나고 진단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컬럼비아 병원의 혈액종양분과의 전임의,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연구 및 진료 인프라가 구성된 환경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하고자 하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내 자신이 실습 이전의 내 모습과 비교하여 조금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전을 위해 용기가 필요한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한 나의 발전과 성장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우리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해외 의학 연구 결과 보고서

실습 기관 :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실습 기간 : 2015년 7월 6일 - 31일



1. 지원 동기
우선 제가 해외의학연구를 신청한 이유는 미국의료를 경험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항상 선진 의료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미국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병원에 방문하여 실습을 하고 돌아온 친구로부터 미국 의대생들은 병원에서 실제로 주치의처럼 환자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지도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최고의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학에 큰 관심이 있었고, 작년 소아과학 실습을 하였을 때도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소아과학에 대한 저의 흥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5주의 실습 기간은 너무 짧아서 추가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소아과학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택실습기간이 바로 제가 다시 한 번 소아과학 실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해외선택실습도 소아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와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 중 펜실베이니아 대학 산하에 세계 최고의 어린이 병원이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이하 CHOP)이 있는데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CHOP은 어린이 병원임에도 병원 자체의 규모가 매우 커서 소아과 자체가 또 하나의 왕국이나 마찬가지로 소아를 다루는 모든 과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이 과들 중에서 무슨 과를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의 한 달간 일정이나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분과들 중 cardiology를 선택한 이유는 작년에 5주간의 소아과 실습 중 소아 심장 분과에서의 실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아 심장을 도는 절반의 학생들은 노정일 교수님 환자를 받아서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주된 일과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환자는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Fontan Operation을 십여 년 전에 받았던 환자였는데 근래에 complication이 발생하여 외래를 다니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선천성 심장기형의 hemodynamic을 이해하는 것과, Fontan physiology 및 Long term complications of Fontan procedure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2학년 순환기학 블록 때 배웠던 내용도 다시 찾아보면 소아 심장 질환에 대해 공부하고, 논문도 많이 읽으면서 소아 심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이유로 4학년 때는 흉부외과와 실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습을 돌면서 소아 심장 질환에 관련된 수술을 배울 수 있어 유익

황 정 연 (의학과)

했습니다. 그러나 소아과, 흉부외과와 실습 기간 동안에 실제 다양한 선천 소아 심장 질환 환자를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흉부외과와 실습 때는 본원 실습을 도는 주에 소아 심장 해외 학회가 있어서 수술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과학 실습 기간 동안에도 2주간의 순환기 병동 실습을 들었지만 이후로도 항상 순환기학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 학문적으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에서 신체검진처럼 기본으로 시행하는 검사들 중 하나인 EKG부터 부정맥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수많은 심장 질환까지 졸업하기 전에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cardiology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실습 내용

CHOP PED, Cardiology에서의 실습은 총 4주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CHOP은 병원 자체가 어린이 병원임에도 독자적으로 운영될 만큼 병원의 규모가 커서 cardiology 또한 또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ardiology 분과에서 실습 일정은 과에서 정해놓은 일정이 있었고 저는 그 일정 대로 따라 돌면서 실습을 도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은 총 4주간 1주의 Consult team, 1주의 Outpatient Clinic, 2주의 CCU Inpatient Service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 1주차 Consult team

1주차 배정은 pediatric cardiology consult team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첫 주차에 있었던 Consult team에서는 주로 NICU나 다른 분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서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 주치의가 내린 cardiology consult에 대해서 evaluation 및 follow up을 주된 업무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 attending은 Dr. Whitehead 였는데 매주마다 바뀌는 consult attending 한 명과 consult page를 받는 nurse practitioner 한 명, resident 한 명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오전 9시부터 consult 환자 차트를 보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실제로 환자를 보러 회진을 갑니다. 병원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환자를 찾아다니며 환자의 murmur를 직접 들어보고, 보호자와 면담을 한 뒤 다시 consult room으로 돌아와 교수님과 레지던트는 consult note를 작성하며 향후 환자의 cardiovascular plan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consult team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주에 consult team에서 실습을 도는 동안 팀 내에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적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익히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학생의 역할은 주로 observing 이었지만 환자를 보러 갈 때 청진기로 murmur를 들어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양한 심장 기형의 murmur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원하는 주제에 관하여 한 주 동안 공부해서 attending께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주제는 long term complications of Fontan operation이었고, 발표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논문을 읽고 요약하였습니다. 또 consult 환자들의 Echo 관독도 해야 해서 교수님께서 Echo를 보실 때 저도 같이 눈에 익히면서 Echo

를 통해 보이는 심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2주차 Outpatient clinic

두 번째 주에는 Outpatient Clinic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Heart transplantation(& cardiomyopathy), arrhythmia (& pace maker), pulmonary hypertension (& general cardiac clinic 등으로 크게 카테고리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clinic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 참관하는 방식으로 외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외래 중에는 교수님께서 신체검진을 하시고 나면 저에게도 환자를 진찰할 기회를 주셔서 대부분의 외래 환자의 murmur를 들어보고 peripheral pulse를 짚어보는 신체검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외래 중간에 저에게도 환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지 직접 문진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환자가 30분마다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래 사이사이에 여유 시간이 많아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나시면 질문을 그때그때 할 수가 있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exercise lab에서 참관을 하였는데 stress test하는 것을 참관하였고, 이 lab에서 exercise echo도 찍는다고 하는데 아침게도 이날 오전은 di 검사를 받는 환자가 없어서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 3주차 Inpatient Service

3주차부터는 2주간 CCU(Cardiac Care Unit)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보는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CCU 병동은 심장 관련 문제가 principal problem이 cardiac issue인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HLHS, AVSD와 같은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cardiopulmonary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입니다. 주된 일과로 오전 8시부터 회진을 돌기 때문에 저는 7시에 병동에 도착을 해서 레지던트와 같이 제가 맡은 환자를 체크하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합니다. 8시가 되면 회진이 시작되고, 제가 맡은 환자 차례가 되면 준비한대로 환자 보고를 합니다. 오전 rounding의 목적이 24시간 동안 있었던 주된 medical issue나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보고 방식은 간단하게 환자 이름과 진단을 말한 뒤 24시간 동안의 문제나 변화를 언급하고, 신체검진 소견, 환자의 main problem 요약, 그리고 각각의 standpoint에 대해서 plan을 교수님과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같은 방식으로 회진을 돌기 때문에 직접 말지 않았던 환자도 알 수 있게 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주치의의 찾아가 더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회진 이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정해진 일정이 없이 제가 맡은 환자를 체크하거나, 오전 회진에서 흥미로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있거나 murmur를 들어보고 싶었던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찾아가 부모님들과 면담도 하고, 신체검진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레지던트와 함께 보러 가거나 문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 4주차 Inpatient Service

마지막 주도 CCU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보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attending은 Dr. Levinson 이셨습니다. 오전에는 회진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보고 싶은 환자를 보거나 다음날 발표할 환자를 문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3명의 환자를 맡아서 문진 하였고, 이중 2명의 환자를 오전 회진 때 환자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 주라서 아직 가보지 못한 OR이나 fetal cardiac center, cath. lab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질문을 하니 마지막 날에는 cath. lab에 보내주셔서

Dr. Glatz와 함께 여러 가지 intervention에 참여하였습니다. 복잡한 선천 심장 구조를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면 가끔은 physiology는 이해가 되지만 anatomy는 와 닿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HLHS나 BT shunt의 anatomy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3. 느낀점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과 실습을 들었을 때는 소아심장 분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 1주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심장 기형 환자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곳에서는 수많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심장 기형 환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2년 동안 실습을 하는 동안 성인과 소아 합쳐서 실제 환자에서 pathologic murmur를 들어볼 기회가 두 세 번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만도 여러 아기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murmur의 성상은 어떠한지, 수축기와 이완기 중 언제 들리는지, 가슴의 어느 위치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지, shunt murmur는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던 곳 중 하나가 outpatient clinic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습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든 외래 예약이 최소 30분 간격으로 잡혀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저 또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 때문인지 특히 환자와 교수님 간의 교감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여유롭고,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 덕분에 저 또한 학생이지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어려움 없이 말을 걸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진료를 한 번이라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해외의 학연구는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의대 교육과 한국 의대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던 점은 병원에서의 학생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인턴이 하는 병원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대생이 화비로 정말 많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임상현장에서 의학을 배우는 형태로 말 그대로 진정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난생 처음으로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레지던트와 함께 보러 가서 제가 먼저 주치의처럼 직접 문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보고 난 후 입원초진 및 입원 경과를 작성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작성한 note는 주치의와 어텐딩께 추가로 cosign을 받아야 하지만, 마치 주치의가 된 것처럼 학생도 환자를 보살피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훨씬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대 학생이라고 하면 환자 care에서는 한발자국 물러나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바쁜 외래에서는 거의 환자에게 직접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진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대생들은 note는 물론 주치의와 함께 order까지 내릴 수 있게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 졸업 직후의 의사로서 역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간의 clerkship을 마치면서 이번 기회는 정말 <다음편에 계속>

위대한 선택

이원택(71, 남가주)



인생은 북창동(BCD) 순두부란다.

즉 크게는 Birth와 Death 사이에 대문자 C, Chance와 적게는, 소문자 c, choice가 있다는 말이다.

대국적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CHANCE만 존재하여 황색인종으로 한국이란 나라에서 사내로 태어났다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순두부란 숙명적으로 두부와 파와 고춧가루를 포용해야 한다. 다만 고춧가루 양으로 plain(심심), mild(약간), medium(보통), spicy(얼큰), danger(화끈)로 매운 정도를 조정할 뿐이다. 기회란 이미 정해진 운명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밀쳐야 본전이다.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다. 순두부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섞어, 김치, 곱창, 만두, 된장, 소시지, 야채 등 십여 개의 선택이 있고 나중에 계란을 깨뜨려 넣느냐 마느냐도 먹는 사람 맘대로이다. 소국적 인생은 순두부 마냥 매일매일, 사사건건이 choice로 점철돼 있다. 선택은 위험부담을 동반한다. 달거나 쓰거나 맛이 없거나 다 내 탓이다.

한국 사람들 만한 운명론자들도 드물다. 한국인 만큼 배타적인 인종도 많지 않다.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가족중심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 이리라. 하늘이 정해준 천혜의 땅을 일구어서 오곡백화 길러 가지고 오손도손 살면 됐지 남이야 지지고 볶든지, 아옹다옹하든지, 실례발을 치고 다니든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배달민족 빼고는 모두가 되놈, 왜놈, 양놈이다. 심지어 오랑캐, 쪽발이, 洋鬼(양귀)라고도 불렀다. 쇠국정책은 대원군 한 사람 만의 생각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보수적인 민족도 없다. 유교에 서는 인생이 나이순이다. 새로운 것과 접觴(접지 안)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 유사 이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세상이 넓어진 근세에 들어와서도 나라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는 실학파가 서리를 맞고, 고루한 관습을 타파하자는 갑오경장이 괴를 보지 않았는가?

백여 년 전 이민 초기에 자의로 이민을 간 사람은 별로 없다. 다른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못해 난민이나 노역자로 고향을 등지고 쫓겨나 다시피 한국을 떠났었다. 한국은 단군 이래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먹고 살기 힘들었다. 오죽하면 만나자마자 인사가 "밥 먹었느냐?"였겠는가! 전쟁 후 1950~1960년대는 말도 못하게 못 살았다. 외국의 구호물자 없이는 생계가 막막했었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하던 1970년대 초반에 중위 때는 미화 40불, 대위 때는 5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한두 해 먼저 제대를 하고 미국에 인턴-레지던트로 팔려간 선배들

은 한 달에 천 불 정도 벌고 4~5년 후에는 5~6천 불, 잘하면 만 불씩 번다는데 고향산천이 대수인가!

따지고 보면 가난이 죄다. 나도 집안이 유복해서 고대광실에서 끼니 걱정 않고 살 수 있었다면 뭘 찾아 먹으려고 미국에 왔겠는가? 돈이 없어서 책도 못 사고, 영화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먹고, 여행도 못 다닌다니... 돈이 웬수로다. 가난하다 보니 한국에 애착이 있을 수도 없고 상대적으로 부자나라, 미국에 대한 동경은 더욱더 달아오르게 마련이어서 28세에 American Dream을 향한 '偉大(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때 부모님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유학'을 가야겠다는 핑계로 우리 부부 편도 비행기 샀으로 알토란 같은 눈 두 마지기를 팔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땅값이 정말로 헐값이었다. 이미 옛날 고려 적에 유학은 끝났으나 가문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 죄송스럽기 그지 없다. 그 땅을 현 시가로 따지면 부부가 한국 왕복을 20회쯤 할 돈이니 그 당시 부동산 팔아서 이민 온 사람들은 모두 bad choice를 한 셈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970년을 전후해서 약 10년간 월남전에 군의관을 파병하느라 미국에 수련의 기근이 들어 외국 의사를 마구 받아 주는 CHANCE가 있었다. 이 기회에 한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반 정도가 미국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민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한국에 남았다면 동기들이나 동창들끼리 밥 그릇 다름 깨나 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Medical-Hub가 되는 데도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CHANCE와 choice를 놓고 저울질할 때 무의식적이거나 배려심, 양보심, 희생정신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양념대군은 자기보다 똑똑한 아우에게 제위를 물려주려고 파락호 생활을 했고 우리 작은 할아버님은 형님과 는 20여 마지기를 나뉘기만 둘 다 빈둥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 아래 형님이나 잘 사시라고 자신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마지 않으셨다.

사실, 대한민국이 장족의 경제발전을 한 데는 이민자들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서독 파견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땀값, 월남 파병 용사들의 피값, 초기 미국 이민자들의 눈물값이 바탕이 됐고 교포들이 송금한 돈과 현지에서 팔아 준 한국 상품값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유학생들의 두뇌값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원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한국을 떠난 것이 전혀 쓰잘 데 없는 짓만은 아니었던 것이, 나같이 머리는 작고 위만 큰(頭小胃大) 놈이 40여 년간이나 한국밥 축내지 않고 미국밥 빌어 먹고 살았으니 대한민국에게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건강부회로 합리화시켜 보고자 한다.

어떤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삿대질을 할지 모르지만 ...

이민 1세는 대개 choice에 의해 이민을 왔고 2세부터는 choice는 없고 CHANCE만 있나니 아무쪼록 위대한 choice를 도약의 CHANCE로 받아들여 미국땅에서 韓(한) 민족이 영계백세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면에서 계속>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여기에 와서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미국의 의료, 미국의 의대 교육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잊지 않고 한층 더 발전하여 한국의 의료, 더 나아가 세계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정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 상 통 화



이동식 (54, 남가주)

한국 마취학의 효시 이동식 동문은 졸업 후 외과 의대에 입문하였으나 진병호 교수의 추천으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미네소타 대학에서 마취과를 수련하고 미정부로부터 당시로서는 거금 5만달러를 받아 미국에서 최신 장비를 들여와서 국내 최초로 모교에 현대 마취과를 창립하였다. 당시에는 외과이나 조수들이 국소마취로 수술을 했으므로 큰 수술은 할 수 없다가 이 동문이 도입한 전신마취 기술로 대한민국 외과학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이 동문은 1967년까지 모교 마취과 과장으로 봉직하다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말레이시아 대학에 초빙되어 그곳에서 현대 마취학을 set-up 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1971년에 도미해서 1973년까지 미조리 주의 St. Louis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1974년부터 1995년까지 St. Jones 병원에서 일한 후 1995년에 남가주의 Dove Canyon으로 은퇴해서 부인과 함께 여생을 즐기고 있다.

이 동문은 전형적인 의사 가정의 가정으로 아들 이창우(71)동문은 마취과를 전수받았고 큰 딸은 안과 둘째 딸은 마취과, 큰 사위 이종일(71)동문과 둘째 사위는 방사선과, 손자와 손자 며느리는 안과 전문의로 가족 중 무려 7명이나 의사로 일하고 있다.

농담 골목

- 시작도 끝도 없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도나즈 입니다. (면)
- 재향군인의 날에 한 젊은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war veteran이 아니고 house veteran이며 얼마전에는 자기 첫 동거자를 사랑케 했다고 했습니다. (면)
- 멋진 중년
여자 스님이 대폿집에 들러 곡차 한 잔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심한 말 다툼이 벌어졌다. 그 원인은 옆에 있던 50대 남자들이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멋진 중년을 위하여"
- 제주행 좌석
모처럼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들렀던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태워드리려고 공항으로 모시고 갔지요. 부산행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저기 둘러보며 화장실을 다녀오던 할머니는 자신이 앉은 의자보다 넓은 텅 빈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이를 발견한 스텐더디스는 할머니를 제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석이예요. 어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해요." "무슨 얘기가? 빈자리 내가 맡은 건데 누구나 앉는게 임자야." 할머니의 시끄러운 소리에 신문을 보던 신사분이 조용히 할머니 귀에 대고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놀란듯이 자신의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사분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 약속은 지켰어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서로 토라져 일주일도 넘도록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하게 된 남편은 하는 수 없이 화해를 가장해 쪽지를 적어 아내에게 건네 주었다.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하니깐 5시에 깨워줘요~" 그리고는 안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시계가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닌가!!! 당황한 남편은 헬레벌떡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데 침대 머리맡에 웬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여보, 5시예요. 일어나세요."
- 어느 서울 며느리
어느 서울 며느리가 시골서 올라 온 시어머니를 승용차에 모시고 시내 드라이브를 나섰다. 매마침 출근시간이라 차가 몹시 붐볐다. 며느리는 차선을 바꿀때마다 손을 흔들어 뒷차에 감사를 표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오늘 드라이브 재미 있으셨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응, 드라이브가 먼가는 잘 했는디, 애 뇌 색시 조심해라. 길에서 만나는 남자마다 손을 흔들더라."
-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면이 점점 높아져서 루이지애나 주가 물에 잠겨 버리면 미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로 부터 땅 값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전화번호
내가 네 전화번호를 cell phone에서 지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네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네게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네.
- 목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요." (고)
- 요즈음 전세계적으로 일기가 참으로 고약합니다. 전지 전능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상)
- Family =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A)
DOA = death in arrival or death on abdomen. (B)

심사평: 이번 호는 입상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골프 이야기 (4)

윤영옥(63, 후로리다)

Pebble Beach 1996 November

마침 마취회화기 있어서 그 유명한 Pebble Beach에서 쳐 보려고 우리 부부는 tee-off time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약처에서는 남은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호텔에 예약을 하고 티타임을 부탁 해 왔더니 일주일 만에 티타임을 주었습니다. 저는 몇 달전 부터 골프 yardage-book을 복사해 놓고 어떻게 칠가를 미리 계획도 해보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페블비취 코스는 우리 부부와 홀랜드에서 온 사람과 그의 조카가 4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골프코스는 엄격한 'cart path only'여서 fairway로 골프카트를 타고 들어 갈 수 없도록 cement 언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치는 두 사람이 매우 wild하게 치는데다 골프카트를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불을 찾아 주느라 기진맥진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도 꽤 잘치는 사람들 같았으나 너무 흥분해서인지 스코어가 형편 없었고 우리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래 tee-off 하려고 기다렸던 우리는 배가 고파서 9홀 끝나는 곳에서 드디어 샌드위치 사서 한 입 베어먹고 카트에 놓은 다음 볼을 치고 오니까 갈매기들이 이미 가져 간 다음 이었고 다시 사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날은 Spyglass Hills 코스에서 쳤는데 이날도 한 젊은 친구와 함께 치게 되었고 이 친구 또한 와일드하게 치는 바람에 불 찾아 주느라 다시 기진맥진 했었습니다. 그 호텔에 해밍웨이가 즐겨 찾았다는 식당이 있는데 바로 밖에서는 물개들이 공짜로 먹는 전복요리가 매우 비쌌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그린피를 내고 비싼 호텔에 들면서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힘들게 골프를 친것이 좀 억울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Dominican Republic에 있는 Casa de Campo로 가 보니까 페블비취는 완전히 over-rate되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Casa de Campo, Dominican Republic

1996년 12월, 여기는 3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다음에는 우리 4가족 (고영희, 송용덕, 이종두 그리고 우리)가 갔었고 또 다음 해에는 클래스 리유니온으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에는 잘 모르고 산타 도밍고 공항을 이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12월 한 달동안만은 본국인이 해외에서 돌아 올때 물건을 많이 가져 오게 허락했다고 해서 본국인들의 그 많은 짐 때문에 오래 지체 되었고 또 여기에서 Casa de Campo까지 1시간 반을 차로 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La Romana 공항을 이용하여 바로 그곳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행장 활주로가 골프코스에서 인접하여 있어서 비행기가 내릴 때에는 차단기가 내려 오곤 했는데 jet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짧은 활주로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비행장을 이용하면서 도착하는 날과 떠나는 날에도 골프를 쳤습니다.

몇년 후에 Dye Fore라 이름하는 골프코스도 하나 더 짓고 비행장도 산 뒷쪽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golf course architect 인 Pete Dye가 지은 The teeth of Dog 과 Links Course가 있습니다. (Pete Dye도 여기를 좋아해서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골프는 연습볼을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칠 수가 있어서 이 두 코스를 바꿔 가면서 하루에 두 번을 칠 수 있

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36홀씩 5일을 치고 나니까 지쳐서 그 다음에는 18홀만 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all inclusive package로 갔기 때문에 tax, gratitude는 물론이고 이 리조트 어디에서나 먹고 마시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ottled wine은 제외) 즉 페블비취의 그린피만 가지고도 하루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이였습니다! 골프코스 특히 The Teeth of Dog은 어떤면으로는 페블비취보다 좋았습니다. 예를들면 바다를 끼고 있는 홀이 페블비취는 3, teeth of Dog은 4홀이 있으며 웨어웨이는 넓고 차를 타고 들어 갈수있고 approach shot을 치기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종업원들은 정말 친절해서 "당신들이 여기에 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는 태도였습니다. 캐디피만 주가로 내야 되는데 몇불 더 주면 더 좋은 캐디를 쓸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Pinehurst #2 코스를 쳐 본 이후 Bermuda grass로 된 그린의 특성을 좀 이해했고 여기는 더 억센 버뮤다 글라스로 된 그린이기 때문에 잔디의 grain에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캐디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하며 그들이 말 하는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자기가 보는대로, 또 생각대로만 하면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pena colada(with or without)를 참 맛있게 마셨는데, 그렇게 더운 날에도 2잔을 계속해서 마시면 머릿속까지 시원해 지는 것 이였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골프코스가 보이는 야외 식당에서 했고, 저녁에는 main 식당의 메뉴가 참 좋았으며 원하면 3-4 파운드 크기의 랍스터도 주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한 20분가면 Charvon River가 내려 보이는 곳에 Casa de Campo에 소속된 3개의 식당 (프렌치, 이탈리아, 멕시칸)과 선물상점이 있는데 모두 훌륭 했었습니다.

골프 이외에도, 여러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었지만 모두 우리의 관심 밖 이였습니다.

Tryall Golf and Resort in Jamaica



1996년 12월, 이종두군의 제안에 따라 우리(이종두, 고영희, 송용덕 그리고 우리 부부들)는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Montego Bay로 가서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Tryall로 갔습니다. Tryall에는 Great Hall이라는 호텔도 있지만 우리는 'Tranquility'라 이름하는 4개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이 있는 ocean front sport cottage에 들었습니다. 항상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은 필요가 없고, 이 집에는 butler, cook, 빨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정원사가 우리를 도와 줍니다. 매일 아침에는 熱帶花로 식탁을 치장해 주고 빨래도 해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골프코스는 매년 Johnnie Walker Invitational Tournament를 하던 곳으로 코스는 매우 아름답지만 rough를 3-4인치로 남겨 두어서 볼이 러프로 들어가면 우리 넷과 캐디 넷이 공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곤 했습니다. 골프카트를 쓰지만 꼭 캐디를 써야 합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season' 바로 전이었기에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골프 라운드가 끝나면 캐디들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우리의 셰프가 미리 준비해 놓았던 점심을 한 식탁에 모여 앉아 먹고 있으면 캐디들이 우리를 다시 '모시러' 왔고 오후 라운딩이 끝나면 우리를 다시 모셔다 주었습니다. 아침에 모은 80달러로 캐디피를 쓰고 남은 돈을 팁으로 주었더니 우리는 팁을 잘 주는 사람들로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매년 거기 가는 미국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골프를 치고 와서는 술을 한 잔 들고 바다에 인접한 수영장에나 바다에 들어가면 참 좋았습니다. 골프 코스도 재미있고, 음식은 많은 경우 요리사가 그 날 잡은 랍스터와 생선을 팔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산 것들로 만들어 주었고 요리사의 솜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매끼의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 butler(Mr. Taylor)에게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받아 온 팁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고 물어서 그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있는 동안에 한 부부당 호텔비로 1천2백달러 정도가 들은 셈이고 음식재료비, 맥주, 포도주 또 공항에서 사온 위스키와 꼬냑 비용으로 가족당 8백달러 정도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음해에 다시 오자는 의논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좋은 곳도 많이 있으니 다른 곳에도 먼저 가 보고 다시 오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다시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후로, 지금은 그린피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면 상당히 경비가 나올 것 입니다.



1997-July Canadian Rocky Mountains

1997년 7월 18일, Intergolf 여행사를 통해서 6일 일정으로 34명의 동기들과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첫 3일은 유명한 Banff Springs Hotel에 있었습니다. 첫 두번의 골프는 Banff Springs Golf Course에서 쳤는데 여기는 겨울에 내린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산 밑을 따라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매우 아름다운 코스였지만 골프코스에는 moose의 냄새와 '왕'모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Tram을 타고 Banff National Park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호텔과 골프코스가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Canadian Rocky의 아름다운 경치도 둘러 보고 Athabasca Glacier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 후에 Lake Louise로 가서 Chateau Lake Louis Hotel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호수가 보이는 방에 들어 있는데 방에서 보는 호수의 풍경이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선전할때 흔히 보여주는 바로 그 풍경 이였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그 경치를 그려서 파는 화가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조그만 풍경화도 하나 샀습니다. 다음에는 Kananaskis Resort로 옮겨서 이틀 밤을 지내고 두 번의 골프를 쳤는데 고맙게도 동기들이 한국 거제도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자를 위한 애광원을 후원하는 5번째 골프시합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부인은 여행사에서 주최한 골프시합에서 'Wild Flowers of Rocky Mountains'라는 책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Golf at Playa Grande, Dominican Republic

1998년 Caribbean Village Playacar에서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이 곳은 세계 여러곳에 펼쳐 있는 Occidental Allegro Resort의 한 곳 이고, Playa Grande, Rio

San Juan에 있습니다. 공항은 Puerto Plata 공항을 이용하고 리조트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호텔까지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리조트였는데 호텔에서 모든 것들은 다 포함 되었지만, 골프코스가 호텔에 속하지 않아서 그린피는 따로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여 전체적으로 Casa de Campo 보다는 훨씬 경비가 덜 들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다시 받아 주지를 않으므로 우리는 이 곳을 너무 좋아해서 Occidental Allegro 리조트 멤버십을 사기도 했습니다. 회원권도 단지 5-6천 달러이고 그 후에 회원은 하루에 35달러이면 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리조트 멤버가 게스트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50달러 이었지만 게스트가 다시 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Buffet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제한없이 하우스와인과 맥주를 마실수 있고 Casa de Campo와 같이, 이탈리아, 프렌치, 컨티넨탈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종업원들도 자기 직장이 거기 기준으로는 좋은 것으로 생각 하는지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RT Jones, Sr.가 지은 이 Playa Grande 코스를 아주 좋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쳐본 코스중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코스는 40-50feet 높이의 해안 절벽을 따라 지어졌고 밑에는 바위에 부딪치는 흰 파도가 장관이었으며 15홀을 제외한 모든 홀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던 12월 초에는 빨리 지나가는 열대성 소나기가 자주 오는데 소나기가 온 후에 바다에 펼쳐지는 쌍무지개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에 가서 수영도 하고 간이(簡易)bar에서 술도 마시며 바둑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바는 매년 여름에 오는 허리케인 때문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합니다. 3년 동안 3번을 간 다음에, 공항관리들의 불친절함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버릇과 기회만 있으면 새치기 하는 유령들에게 실망하여서 다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9 Ireland Golf

우리 4부부는 7월 16일 12일간의 Ireland Golf Tour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SGH Golf Inc.를 이용 했더니 우리 8사람만을 안내 하였습니다.

Shannon 공항에 내려서 3박을 할 로알 호텔에 체크인 하였는데, 이 호텔은 로얄이란 이름에 걸맞는 우아한 그러나 크지 않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였습니다. 다이닝룸도 아담하고 우아해서 좋았는데 식당 피아니스트에게 먼저 팁을 주는 사람은 역시 송용덕군 이였습니다. 다음날 우리가 친 Waterville 코스의 4개의 파3홀들은 아일랜드에서 으뜸간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Arnold Palmer가 architect인 Tralee 골프클럽에서 쳤으며 매일 오후에는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들과 해안절벽을 관광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아일랜드에서 첫째 손가락에 꼽히는 Ballybunion Old Course에서 쳤는데 첫째 홀 오른쪽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어서 우리같은 골퍼들이 잠들기 좋은 곳이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골프를 친 다음에 Ennis 지방에 있는 Old Ground Hotel로 옮겨 갔습니다. 이 호텔은 거의 200년이나 되었으나 완전히 현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St. Andrews of Ireland'라고 알려진 Lahinch Golf Club Old Course를 쳤는데 #5(The Dyke)와 #6(The Dell)의 blind approach shot을 쳐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코스를 꼭 쳐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우리는 Dublin으로 <다음면에 계속>

인공 심폐기



Heart Lung Machine

조 중 행(69, 시카고)

먼 옛날 어느 시골 방앗간의 방동기같았던 너로 부터의 시작이었다.
 먼 옛날 시골목장의 우유짜던 튜브 - 너로부터의 시작 이었다.
 언제나 푸른말(靑馬)같이 뛰어다니던 너.
 요즘엔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散調), 조용히 속삭이기만 한다.
 매일 같이 환자 앞에서 외치던 "펌프 돌리세요, 이제 끄세요."
 "오! 제기랄" 할 때도 있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있었다.
 혼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보며 울던 때도 있었다.
 아직 그대 안의 나사들 단단하건만
 그대 뒤흔던 여름의 숲 이젠 갈색으로 물들고,
 나의 심장은 조금씩 식어가는가?
 지금 고개 숙인 너, 푸른말(靑馬)이여,
 그대의 차가운 이마 위에
 나 이제 이별의 작은 입술 자욱 남긴다.

It was you from the start, the loud motor from a country mill.
 It was you from the start, the half-inch milk tube from a dairy farm.
 You were a racing horse, day and night.
 These days you whisper the "Phillip Glass" sonata.
 I used to call you every day: "Pump on", "pump off"--
 There was a time when I screamed "Oh Shit!"
 There was a time of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There was a time when I went out alone,
 Washed my face with cold water and watched teary eyes in the mirror.
 Though your screws are still tight and firm,
 My heart seems to lose its might.
 The summer is gone
 The green pasture around us is turning yellow.
 I am leaving you, my dearest, for another horseman.
 Now, on your cool brow drooping,
 I am leaving a small trace of my lips-a kiss farewell.

*심장 수술시 수술도중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 해주는 기계.
 심장 외과외과사가 수술하는데에 필수적 장비. 1950년대 중반부터 개발,
 현대 심장 수술이 가능해짐. 초기 인공심폐기는 미네소타 목장의 우유
 짜던 펌프에서 idea가 나왔다는 설이 있음.

Heart Lung Machine: A Essential machine for Modern Heart surgery,
 developed in mid 1950's. It functions as the heart and lung of the patients
 while heart surgeons work on the patient's diseased heart. First generation
 heart surgeons got the idea of heart lung machine from a milk-pump in a
 dairy farm.

작가소개: 시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흉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근래에는 1년의 2/3를 서울에서 보내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국제진료소
 의료부장으로 일하고 있음. 게재된 시는 본인의 '은퇴의 심정'을 읊은 것이라 함.

《전면에서 계속》가서 시내구경도 했
 습니다. 젓먹이 아이를 옆에 안고 구
 걸하는 한 아랍계 여자가 껍 애처럼
 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일동안 지낼
 Schoolhouse 호텔에 들어 갔습니다. 학
 교 모양 옆으로 길게 지어져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몰라도 꽤 괜찮
 은 호텔이었습니다. 다음날은 Malahide
 Castle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Port-
 marnock Golf Club에서 쳤습니다. 마지
 막날 7월 23일에는 3년이 바다로 쌓여
 있는 Island Golf Club에서 치고, 바이
 킹 박물관을 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골프 투어때와는 달리 아일랜드에 있
 는 동안 매일 가벼운 비가 올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역시 바닷가의 골프코
 스텔이어서 바람이 불면 그린에서 퍼
 티팅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날도 있었습
 니다.



The American Club at Kohler, Wisconsin

The Blackwolf Run and The Whis-
 tling Strait Golf Course 1999년 7월.

병원에 없으면 골프코스나 골프상
 점에 있다는 김주용군이 국내골프를
 주로 주관했는데, 일리노이주 블루밍
 데일에 있는 Indian Lakes Resort에서
 열리는 서울의대미주동창회를 참가하
 기 전에 우리는(이종두와 우리 부부와
 함께) 김주용 군의 제안으로 박세리가
 US Women's Open을 이겨서 한국 여
 자 골프의 새장을 연 The Blackwolf
 Run을 치기 위해서 The American Club
 에 2박3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박
 세리가 마지막날 18홀에서 물에 들어
 간 불을 쳐서 par를 함으로써 결국 우
 승 한 것을 기억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칠 때는 그 water
 hazard가 모래 벙커가 되어 있었습니
 다. 알고 보니까 특별한 때에만 물로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The
 Whistling Strait Golf Course에서 쳤는데
 김주용군이 캐디에게 매우 후한 팁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PGA 챔피언십이
 자주 열리고 미국내에서 베스트 25 랭
 킹에 들어 가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애광원을 위한 자선골프
 1981년에 거제도에 있는 지체정신장

애자 복지재단의 창설자이신 김입순
 원장님의 신앙간증을 제가 다니던 리
 치몬드 한인장로교회에서 듣게 되었
 습니다.

애광원은 6.25동란이 한창이던 1952
 년에 딸 하나를 데리고 거제로로 피
 난 간 김 원장님에게 보건사회부에
 근무하는 선배격이 되는 분으로 부터
 끝없이 물어대는 6명의 영아들이 반
 강제적으로 맡겨짐으로 '애광원'이라
 는 고아원이 시작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150여명의 고아들이 장성
 하여 떠난 후에는 아무 갈 곳도 연고
 자도 없는 6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자들
 만 남게 되어서 애광원은 이들을 위
 한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입순 원장님의 신앙간증에 우리는
 특히 의사인 저는 그의 솔직함과 깊
 은 신앙과 불타오른 열정과 그들 장
 애인들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연세대학 총장이
 시던 백낙준 박사가 고문이시고, 우리
 선생이셨던 장기려 박사가 초대 후원
 회장이셨으니, 애광원은 저의 부부에
 게는 정말 신임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광원을 돕기 위하여 우리
 교인(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들과 다
 른 골프 친구들과 함께 자선 골프대
 회를 열었고, 매년 애광원 골프대회를
 지난 33년간 가져 왔습니다.

처음 대회에서는 1천6백달러가 모금
 되었으나 지난 32년간 60만달러이상
 모금 하였습니다. 매년 골프참가자는
 50-60명 정도이지만 골프를 치던 안치
 던 계속 도와주는 친구들 때문에 성
 공적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요즘은
 참가자가 평균 5백달러정도를 도와주
 며 "The Friend of Ai Kwang Won, Inc.
 USA"의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5번, 1991년에 후로리
 다주 Palm Coast에서, 1992년에 아리조
 나주 Tucson, 1993년 제주도에서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만났을때, 1996년에
 디즈니 월드에서 그리고 1997년 동기
 들이 캐나다인 로키에 갔을때 고맙게
 도 애광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열어
 주셨을뿐 아니라 아직도 도네이손하
 여 주시는 동기분들도 있어 매우 고
 맵게 생각합니다.

2011년 미주 애광원후원회 창립 3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의 음악
 대학생중에서 선발된 6명의 선교합창
 단 'U-Angel Voices'가 자비로 미국에
 와서 여섯 도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뉴저지에서는 추재목군과 윤영섭군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애광원은 한국, 일본, 독일 TV방송
 에 매우 여러번 나왔고 많은 잡지에
 도 소개되었으며, 와서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책으로도 쓰여
 졌, 詩人の 시로도 소개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네델란
 드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 등이 있는 곳, 그런
 어두움이 예상 되는 곳에서 모든 사
 람에게서 보이는 미소를 보시면, 전애
 어느 방송인이 말 했듯이 "장애자의
 천국"을 발견 하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애광원을 생각할 때마
 다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주었던 것
 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아 왔다고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이 있으시면 한번 둘러 보시라고 권
 하고 싶습니다.

골프의 천국 Citrus Hills, Florida

2001년에 은퇴를 하고 제3의 고향
 리치몬드를 떠나 (둘째 고향은 뉴욕)
 이 곳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Citrus Hills이 어디에 있는가
 를 물으시면 우리는 농담으로 "비행
 기를 타고 세상 끝으로 와서, 다시
 2시간 운전해 오는 곳입니다" 하고 대
 답 합니다.

우리가 여기로 오기를 결정 할 때,
 비록 손자 손녀들이 멀리 있다 할지
 라도 디즈니월드가 근처에 있는 한,
 저희가 우리를 보려고 올 것이라고
 생각 했고 또 예상대로 자주 오게 되
 어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한국인 가족이 47세
 대, 겨울에만 거주하는 14세대가 있습
 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조(租)를 짜
 서 매일 골프 티타임을 얻고 또 돌아
 가면서 週中에 스케줄 하는 사람은
 2개월, 토요일 남녀혼합골프대회 스케
 줄 만드는 사람은 4개월씩을 책임 맡
 아서 봉사 합니다. 토요일 시합결과에
 따라 돈(벌금?)을 걷어서 2개월에 한
 번씩 골프만찬도 갖습니다. 저는 일요
 일만 제외 하곤 매일 아침 8시전후로
 골프를 시작 합니다.

여기는 아열대(亞熱帶) 기후여서 비
 는 보통 오후에 오고, 또한 모래땅이
 기 때문에 비가 그치기만 하면 골프
 카드를 타고 어디는지 갈수 있으므로
 1년에 비가 와서 못치는 날은 한 10번
 정도이고 겨울에 서리가 와서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여섯번 정도 입니
 다.

나이가 들수록 더 운동을 해야 하는
 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 gymnasium에
 가서 한시간 동안 땀을 흘리는 운동
 을 하고 사우나를 합니다. 이 곳은 미
 국 어느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신
 한국분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건
 강에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더
 건강해지고, 특히 골프를 즐겨하시는
 한국분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사람들
 이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수 있는 곳
 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Age Break'
 (골프타수가 자기 나이보다 적은
 것)을 4번 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
 기를 기대 합니다.

우리가 쳐 보았던 다른 골프코스들

우리는 수 많았던 class reunion, 서울
 의대미주동창회, 재미한인의사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골프를 즐겼습
 니다. 우리 동기들은 한동안 골프대회
 때마다 우승권에 들었으며, 고영희는
 서울의대 골프시합에서 3년승을 하는
 대업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기해 들것은 1998년 12월
 11일에 제인(Mrs. 고영희)이 동기들이
 모였을 때 Amelia Island Plantation의
 Ocean Course에서 홀인원을 하여 우리
 들이 한턱 잘 얻어 먹은 것 입니다.
 紙面 형편상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2011년 Golf Digest란 잡지에서
 베스트 25 곳 중에서 이미 기술 되지
 않은 곳들은:

- Kiawah Island, SC, Bethpage(black),
- Long Island, NY, TPA at Sawgrass,
- Jacksonville, FL, Kapalua, Maui, HI,
- Harbor Town, Hilton Head / Sea Island,
- GA, World Woods, FL, Caledonia,
- Myrtle Beach, NC

이외에 몇 곳만 더 열거 하면:

국내에서는

- La Palomar Resort, Tucson, AR, La
- Quinta, La Costa, Torrey Pines,
- Industrial park, LA in CA, Doral, PGA
- West Palm Beach, Innisbrook, Palm
- Coast in FL, Galloway Gardens, Stone
- Mountain in GA, Mauna Kea, Wailea,
- HI, Sea view CC at Atlantic City, NJ,
- Brown Mountain Resort, Upper NY,
- Golden Horse Shoe, Williamsburg in VA

국외로는

- Ceroma Beach, Puerto Rico, Tierra
- del Sol in Aruba, Mahogany Run in St.
- Thomas Princes at Acapulco & Puerto
- Vallarta, Mexico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5년 7월 1일 ~ 2015년 10월 15일

- 1949 김지익
- 1951 이상하
-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양거영
- 1956 김신형 김익창 도상탁 박삼기 서상철 손종수 유호준
- 1957 강영섭 김용진 임종원 임종식 정구영 서영환 정진목 주명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수산 김순옥 김시한 김해암 박용화 송세엽 이동목 이만택
이상문 이상설 이운순 이종용 임영신
- 1959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방덕환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임낙중 최대한 최용천
최혜숙
- 1960 김영환 김완주 김익진 김인환 김택경 박준명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이순환
이효빈 임필순 조재동
- 1961 강세부 강창욱 고의걸 김영철 김예흠 김학철 김화섭 박준환 손기용 안창현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백 장태환 조은순 차철준 최성덕 최용성 최태순
- 1962 김석식 김호균 박종건 박찬형 송영두 승홍일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정정수 황현상
- 1963 권영재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재종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학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능석
이법석 이병준 이종두 이형근 장세곤 조열하 한광수
- 1964 권정덕 김용두 라찬국 신두식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찬남 이흥표 정유석
조성준 주의돈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 1965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중수 김택환 박수안 서좌일 서흥석 손광호 이광선
이법석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홍수웅
- 1966 김경세 김우신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장한교 최순채
한일성
- 1967 고영희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박정일 방정화 이근웅 이소희 이정화
이태석 이태안 전영성 최무웅 최승웅
- 1968 고남규 김 철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희주 노영일 서영일 서운석
서진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세현 유우영 이규달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변영석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윤효윤 임응규 최종진 *(VA)
- 1970 박홍식 방준재 오석일 유종현 이석규 장극기 조남현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효순 노재홍 박상효 서정자 이원택

- 이종일 이종준 조병선 조세진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재석 김현배 오용호 이신재 최인섭
- 1973 김정용 나두섭 민인기 서인석 성갑제 위장호 조재종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웅진
- 1975 김자역 전경배
- 1976 김정아 유영걸 한승진
- 1977 감준희 박일우 박정식
- 1981 이선희
- 1984 서귀숙
- 1985 임경옥
- 1999 이재용

은 동창회비를 2회 납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3rd Convention Donation

- 나길진(59) 250 허선행(64) 500 이흥표(64) 300 유우영(68) 300 이규달(68) 1000
- 김경인(68) 1000 차재철(68) 75 김병오(69)*200 김유식(71) 175 김성환(71) 500
- 조세진(71) 125 오용호(72) 200 서인석(73) 500 *(VA)
- 이원택(71) 200(시계탑 광고비)

Green Project Fund

- 이용길(62) 200 김재종(63) 75 이흥표(64) 100 허선행(64) 300 민발식(66) 100
- 서운석(68) 2500 황훈규(68) 100 윤효윤(69) 100 김유식(71) 50 조병석(71) 75
- 서인석(73) 100 한승진(76) 250 서귀숙(84) 100

Charity Fund

- 서상철(56) 75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승(65) 100 서운석(68) 500
-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200 김익창(56) 500 임필순(60) 100 황현상(61) 100 이기범(62) 300
- 이흥표(64) 125 서운석(68) 500 최종진(69) 100 서정자(71) 300 김효순(71) 125
- 김자역(75) 500

General Donation

- 노용면(55) 75 양거영(55) 50 서상철(56) 100 유호준(56) 75 주명식(57) 100
- 이동목(58) 100 강창욱(61) 50 고의걸(61) 50 김화섭(61) 75 장태환(61) 50
- 박찬형(62) 300 김계윤(63) 25 김재종(63) 75 이흥표(64) 350 최준희(64) 175
- 김덕진(65) 1000 박수안(65) 75 이한승(65) 50 임현재(65) 150 정길화(65) 75
- 김동수(67) 50 김성철(67) 50 이태석(67) 175 김희주(68) 50 신규호(68) 50
- 황훈규(68) 100 변영석(69) 100 송용재(69) 200 윤효윤(69) 75 오석일(70) 125
- 오용호(72) 100 김웅진(74) 100 이재용(99) 100

Member Directory Fund (2015. 6.30 주소록 발송이후 ~)

- 김신형(56) 50 서경환(57) 100 김순옥(58) 50 박준환(61) 100 최태순(61) 25
- 이기범(60) 25 김승태(63) 75 구경희(65) 75 김중수(65) 100 장한교(66) 50
- 이상훈(68) 75 이종준(71) 25 오용호(72) 100

2016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사진 공모전



사진은 추억을 담은 그릇이자 예술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사진학'에 정진하는 마당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걸작' 들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진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 1) Artistic photos: 한 명당 10편 이내 출품이 가능함.
가능한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첨부 요망함.
- 2) Memorable photos: Category 및 작품수의 제한이 없음.
유년시절, 학창시절, 전체동창회, 지역동창회, 동기회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환영함. 년도, 장소 및 관련된 설명 첨부 요망함.

응모 요강:

- * 마감일: 2016년 3월 31일
- * Digital 사진: 파일 용량 10MB 이하의 JPG file; size는 제한 없음.
- * Analog 사진: 300 dpi 이상의 scanned JPG file
scanner가 없으시면 원본을 본부에 보내주셔도 됨.
- * 접수: union13728@gmail.com (by e-mail 시계탑 편집실)
SNUC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50 (by mail)

수상작 선정:

- * 2016년 4월 한 달간 접수된 작품은 회장이 임명하는 3~5명의 심사위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1, 2, 3등 및 가작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2016년 6월 학술대회장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접수 후 1-2일내 접수되었음을 이메일로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바람. 계획중인 동창회 웹사이트에 설치되면 'Photo Contest'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응모한 작품들을 시계탑에도 사용될 수 있음.
- * 가능하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한 사진첩 혹은 DVD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서운석(68)
시계탑 편집장 이원택(7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